

어느 시대나 어려움은 항상 있어왔으며 그럴 때 마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던 개혁의 선배들 믿음을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사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10월 31일 (토) 제 1800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 발행인 칼럼 지령 1800호에 부쳐 ●

##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누구도 팬데믹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런가, 새삼 내 맘에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다. “내놓던 옛 동산에 오늘과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 지고 없구료/ 지팡이 도루 짚고 산기슭 돌아서니/ 어느해 풍우엔지 사태져 무너지고/ 그 흙에 새 솔이 나서 키를 재려 하는구료” 아무리 그리워할들 옛 동산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에 그곳에 반치고 있다는 애절함과 기대감이 섞인 노래 말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다. 그렇다. 팬데믹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익숙하게 놓던 옛 동산의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힘들지만 가야 할 새 길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누구도 1983년 1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세상에 태어난 그 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후

37년이 지났고 오늘로 지령(紙齡) 1800호가 발간된다. “문서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신문은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등의 새롭고도 벽찬 환경들을 계속 만났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히스핑거(His Finger)출판사와 히스핑거몰(His Finger Mall)이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이름으로 세워져 활동의 지경이 넓어졌다. 그 어떤 도전과 유혹이 있어도 미주크리스천신문은 하나님의 소명과 필자들의 정성과 독자들의 후원을 멀리하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1983년 1월 3일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팬데믹이나 미주크리스천 신문의 영향력과는 견줄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종교개혁인데 작금의 모습에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무엇보다 교리가 그렇다. 마틴 루터는 온갖 고행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신음하다가 성경에 눈을 뜨고 마침내 이 신칭의(以信稱義)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지 않았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빛나는 진리는 어디가고 다시 자력(自力) 구원의 길로 가려는 개신교도들은 도대

체 누구인가. 종교개혁을 향해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로마가톨릭의 트론티종교회의는 다름 아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음흉한 노래였다. 종교개혁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동산에서 꺾어 손에 쥐어 꽃을 던져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꽃 이름은 툴립(TULIP)이다. 네덜란드를 주산지로 하는 아름다운 꽃 툴립. 신학적 격전장이었던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묶여져 손에 들려진 그 꽃을 버린다는 것은, 다시 가서는 안 되는 종교개혁의 이전 길로 가려는 어리석은 시도이다. 종교개혁의 후에 들어라만 다 알고 있는 다섯 개 교리의 첫 글자를 모은 것이 TULIP이다. 결코 시들지 않을 아름다운 꽃이지 않은가. Total Depravity: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Unconditional Election: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Limited Atonement: 주님의 속죄는 택한 자를 위한 것이다. Irresistible Grace: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거절할 수 없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구원받는 자는 끝까지 지켜진다.

종교개혁의 처음과 끝은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야멘 하는 것이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거침없이 아니요 라고 외치는 것이다. 말씀의 회복을 품은 종교개혁의 햇볕은 1517년 10월 31일 비

텐베르크 성벽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었다. 그런데 지난 503년 동안 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동안 서로 작은 오해만 있었던 것처럼, 로마가톨릭과 정경계 어깨동무한 개신교도들이 있다. 그들과의 어깨동무가 무엇이나고 펄쩍 뛰면서도 그 정신과 실제 내용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개신교도들도 있다. 그럴 수 없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더구나 종교개혁은 503년 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그리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면 종교개혁의 단 하나의 방향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아직까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침과 삶의 유일한 원리로 삼지 않은 한,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한, 종교개혁은 미완(未完)의 개혁이다.

그렇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팬데믹 이전으로도. 1983년 1월 3일 이전으로도. 그리고 물론 1517년 10월 31일 이전으로도. 우리는 간다. 미래라는 새로운 길을 걷는다. 우리는 확신한다.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희망의 미래를. 우리는 신뢰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날들로 결코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 주권적 사역 안에서 개혁은 이뤄진다!

‘2020 종교개혁주일 미 대선 상황에서 짚어보는 칼럼의 정치개혁원리와 실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부흥은 성령이 마른 뼈들 속에 들어와(겔37장), 그분의 능력을 행사함으로 새 생명을 일으키실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지 않으신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성격의 부흥은 그 어떤 인간의 프로그램으로도 관리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종교개혁의 스케줄을 스스로 정한 일은 없다. 웨일스의 부흥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예정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각성도 사람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교회역사의 이런 장엄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안에서만 일어났다. 즉, 하나님이 죽어 가는 교회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만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부흥과 개혁의 차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 단어 자체가 암시하는 것처럼 부흥은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복음전파가 교회의 핵심목표가 될 때 선교와 전도 활동은 종종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영적 생명의 부흥이 반드시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혁은 교회와 사회가 유지되는 틀이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데, 부흥이 개혁으로 발전하려면 복음이 사회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 부흥은 다수의 새로운 크리스천을 낳을 것이나 이 새로운 사람들이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결국 개혁에까지 이르려면 그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개혁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특히 ‘2020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칼럼이 제네바에서 실제로 실현했던 정치적 개혁 원리와 실천은 도움이 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근 목사



3면  
부른초장  
송정명 목사



4면  
개혁의 땀방울  
조진모 목사

7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lchpress.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지령 1800호 축하



백승철시인 (에피포도에술과문학 대표)

이곳에서의 시작

무수한 지난 세월 다시 다시 일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끝없는 감사는 그때 그 장소 시간 속에 휘돌아 변함없이 질 수 있었던 것은 처음과 끝에 머물 하나님의 호혜 때문입니다

힘든 언덕을 걸어가면서도 즐거운 찬양은 꼬리 물고 뚜껑 없는 눈물 향아리 기쁨의 그림자 밤길에도 글이 되어 여기까지 흔적은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먼지바람 잠재우고 허리 굽혀 손으로 땅에 쓰던 태초에 말씀이 살아 가슴으로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손끝에서 하늘 소리가 되어

하나님,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언어로 외로움도 견디게 하시며 글 담은 목소리 담 장 넘어 이웃에게 열매 나누어주며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말하는,

온 세상 덮는 복음이 태양도 머물게 할 존재 이유로 길을 열어 손으로 노래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

다시 오는 시절에 무릎으로 드리는 고백을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시편 울곧은 글이 노래가 되리라



지령 1800호 축하



신원규 목사 (좋은마음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18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가운데 시원하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물을 담은 컵은 많이 준비해 두어서 넉넉한데 컵에 물을 붓지 않습니다. 이 물은 콜로라도 강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며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또 야곱의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물도 아닙니다. 그들의 신음은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오직 출애굽기 17장 6절에 호렘산 반석을 말합니다. 반석에서 솟는 물은 세상

어딘가에 근원을 두지 않고 땅위가 아닌 위로부터 발원하는 물을 말합니다. 반석이 없는 곳에서는 수고와 땅을 흘려도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령 1800호를 맞이한 우리들의 동역자인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반석이 없는 곳에 반석을 실어 나르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명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전사인 일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 반석의 중요성을 알리고 깨우쳐 주는 사명에 충실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1983년부터 지

금까지 신문을 뵈고 싶고 미국전역에 한인교회를 누비며 땅을 흘린 고 김순명 목사님 그리고 모든 목회자로부터 존경을 무한히 받으시며 미국과 전 세계 오대양주를 씬 없이 복음의 열정으로 신문과 삶을 같이 하신 고 장영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종종 그분들이 그리워지고 뵈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심과 같이 지구촌에 신음하는 영혼을 향하여 신문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 김성국 목사님을 3대 사장으로 세우

신 것을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의 사명을 안고 묵묵히 땅을 흘리고 있는 전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석을 나르시는 사명과 반석의 물을 탱크에 가득 채우는 사명을 영원토록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힘차게 응원합니다.

호렘산 반석이 신문위에 그리고 모든 교회에 온전히 회복되도록 땅을 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역사적 위기상황에서도 안정감과 희망 주는 리더십 소개

우리는 대부분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구성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리더의 모습이 필요하다. 리더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한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리더 자신의 개인적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버드경영대학원 경영학 교수인 낸시 코엔(Nancy Koehn)은

링컨, 루스벨트, 처칠, 새클턴 등의 리더들의 모습을 연구하며,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역사적 위기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안정감, 믿음, 희망을 주고, 자신의 개인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성공한 리더십의 비결을 제시한다(How History's Great Leaders Managed Anxiety). 그의 연구는 교회공동체의 리더들에게도 유용한 힌트가 될 수 있다.



낸시 코엔은 불안이 치솟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한 리더십의 비결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사람들에게 잔인할 만큼 솔직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만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리더는 사람들이 상황의 추이를 알고, 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리더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사실"을 전달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런 후에 핵심문제에 대해

리더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동체가 갖춘 역량 중 무엇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역량은 재정, 인력 등 유형적 역량도 있지만 믿음, 용기, 격려, 비

전과 같은 무형자원도 있다.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불안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없애 줄 없지만 공동체에 실재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처칠이 히틀러에 맞서 싸우며 하원에서 한 연설은 유명하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4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Best Saver. Tel: 718-762-0011. www.bestsaver.us

가주 장의사 직원 구함. 1. 안수받은 목사님1명과 사무실 여직원. 562)622-939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Tel: 718-445-0200.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안에서 개혁은 이루어진다!

(1면에서 계속)

참된 개혁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부활할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복음이 명백하고 충만하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로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만 구원의 능력을 행사하신다.

종교개혁자이며 행정가였던 존 칼빈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제시하고 실천했다. 기독교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상국가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국가로서, 타락이전에 있었던 국가가 있고 타락이후에는 천국이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 결과로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대체로 이상적 국가가 아니라 차선적 정부 형태에 관심을 보이게 됐다. '이상국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등식은 종교개혁기까지 지속되면서 실제에 있어 이상국가 개념은 칼빈에 와서야 비로소 재등장하게 된다. 칼빈은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이상국가, 이상사회를 조망해 그리스도 정치를 통한 기독교 국가라는 모형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나뉘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그러나 칼빈에 있어 교회는 국가보다 우월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에게는 국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가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성스러운 유대감을 교회에서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칼빈에게 모든 국가는 필연적으로 기독교 정부여야 하며, 또 이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임무는 먹고 마시는 등 생활의 외부적인 조건을 보장해 주고, 공공적 평화와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 뿐만은 아니다. 이들은 정부의 진정한 의무의 단순한 물리적 전제조건일 뿐이다. 정부의 진정한 임무는 "종교의 공공적 구현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게 하고 또한 인간성이 그들 사이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칼빈 당시 제네바는 민족주의와 개신교 신앙이 강하게 결합되면서 1534년 9월에 당시 가톨릭 교회의 땅과 재산들은 제네바의 소유가 됐고, 1535년에는 도시 차원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다:

#### 1.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1): 기독교인은 정상적인 국가에 순종하며, 국가의 양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칼빈에 의하면 이와 같은 맥락의 정치 참여는 특별히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이자 시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안이다.



#### 2.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2): 불의한 정부에 대한 불복종의 가능성

칼빈은 불의한 국가에 대한 불복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경우 칼빈은 개인적인 불복종이 아니라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3.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3): 사회 복지 활동

칼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 사와 섬김에 대한 책임을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가 사회 복지 활동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칼빈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집사(deacon)" 직분을 통해서 이 활동을 감당하게 했다.

결국 우리가 개혁을 원한다면, 다른 누가 아닌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 그만 어둠에서 복음을 끌어내어, 모든 개혁의 고백이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post tenebras lux), 즉 "어둠 후에 빛이 있다"가 되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루터는 "모든 입이 신약 성경의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소리 높였다.

더불어 루터는 복음을 명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세상과의 갈등을 마주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또한,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숨기고, 복음을 희석시키며, 또 복음을 모호하게 만드는 유혹에 이끌리게도 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에 내재된 세상과의 마찰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타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복음은 그 자체로 장애물이자 하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복음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개혁을 원한다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힘써야만 한다.



### 서머타임 해제

이번 주일인 11월 1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이날 새벽 2시를 1시로 돌려놓으면 된다.



### 시론

## 아두폰테스(ADFONTES)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루-솔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마'라는 말은 '평화'는 '평화'인데, 빈정대는 말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거룩하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도 평화롭지 않은데, 하나님도 거룩하지도 않구만, 오히려 그 안에는 부패와 외식만 가득했구만" 이런 빈정거림이 "예루솔로마"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새끼 타고 들어가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솔로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솔로마'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 입니까? "예루솔로마"를 뒤엎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겔르로는 번

지러운 평화의 도시,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서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들과 짜고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는 거짓과 위선의 '예루솔로마'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어야 할 성전이 '예루솔로마'가 된 것을 보시고 격하게 상을 뒤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마21:13).

'예루솔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솔로마'입니까?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염려합니다. 개탄할 노릇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과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민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들은 하나님과의 진솔한 인격적인 만남(개인성화)과 그분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동참(사회성화)보다는 사람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느덧 사람이 중심이 되어갑니다. 교회는 예수만 드러내야 할 텐데 점점 사람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이벤트와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화의 '예루살렘'이어야 할 교회가 어느덧 허울과 위선과 부패가 가득한 '예루솔로마의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솔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아두폰테스'(ADFONTES)는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자 슬라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걸작품 중 하나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는 그림이 완성된 후 친구 몇 명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감추어진 그림을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합니다. 그림에 매료된 친구중 하나가 탄성을 지르며 '정말 대단한 그림이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포도주 잔은 정말 실감이 나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나. 정말 놀랍군' 말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곧바로 붓을 가지고 오더니 유리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감격스럽게 그림을 구경하던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지워 버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그림이래.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지면 안되지 않겠나?'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다시 들어 잔을 지우고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에게 예수만 나타나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다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붙은 또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 보여지는 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싫어해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좋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기도, 찬송, 예배, 봉사와 헌신, 전도, 교제 등등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을 접점 삼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교회는 결단코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야 하고 그 피가 매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예루솔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아두폰테스'(ADFONTES)는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자 슬라건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예루살렘의 교회'로 뒤엎어 회복시키시려고 나귀새끼 타시고 내 안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으로 뛰뽁뽁 들어오십니다. '아두폰테스'(ADFONTES)!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고전1:18)이심을 믿고, 눈물 젖은 눈으로 오직 '에케이 호모'(Ecci homo),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셔서, 내가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루솔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아두폰테스'의 역사가 종교개혁주일에, 아니 매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 되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미주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을 섬기시는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800호를 축하드리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며 섬기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손길에 치하를 드리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986-4400 (대표)  
· Fax (718)986-0074 (대표)  
·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목사의 목상

####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 오직 성경

먼저 미주 크리스천 신문이 발간된 지 1800호를 맞아 한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지를 통해 수 없이 증

거 된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에 본인이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날을 맞이하며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를 나눌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그를 찾기 위해 어디에도 손을 뻗지 말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기를 원하신다. 성경 말씀을 향해 손을 뻗어라. 그러면 당신은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유혹을 받아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이런 믿음 가운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사실 마틴 루터는 실제로 일어난 종교개혁과 같은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 현실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성경적으로 바꾸려는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몸짓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에 개혁을 가져왔고 인간들의 영적인 삶에도 개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후로 성경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에게 의하여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의 표어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

한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역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삶의 참다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뿐인 영적인 나침반이요 보배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29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해오면서 “이 말씀은 참 진리다”라는 것을 제 몸소 체험하여왔습니다. 목회 중 어려운 일을 만나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성경은 저에게 등불이 되어 길을 제시했고 그 빛을 따라가므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처음과는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오직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길 잃은 자는 길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 송정명 목사

(미주성시화운동 공동대표 회장)



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 1.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쓰나미 가운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과학문명과 물질문화가 최고조로 발전되어 우리의 생활영역이 많이 편리해진 것입니다. 컴퓨터의 발전과 SNS의 발전은 우리 생활 전반부에 확장되어 온 세계를 빠른 시간대에 한 눈으로 볼 수 있고 상황 변화에 적응시켜 나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유도 해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파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2.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라.

기독교는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교회도 강력한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가정사실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생활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친교해온 그 시간들이 귀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현상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처방도 믿음이란 사실을 체험적으로 수용하는 자리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3.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고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민족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도 살펴 나가야 되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도 살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 보자는 꿈으로 미국으로 이주해왔던 청교도들이 이 땅에 정착한 지 꼭 4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순수했던 신앙은 희석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권위를 잃어가는 시대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우리 민족을 이 땅으로 보내서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을 주셔서 잠들어 있는 미국의 영계를 다시 깨우려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들도 그 한 모퉁이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evjmsong18@gmail.com

## 변화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 로마서 12장 1-2절

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행위나 고행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전의 증축 공사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성경에도 없는 속죄권을 성도들에게 팔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지역으로 파송해서 모금운동을 전개시킨 것입니다.

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무모한 짓이지만 루터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도전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필자도 루터의 개혁 현장인 비텐베르크 대학을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큰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붙여졌던 95개 조항 조항들은 불타 없어지고 현재는 복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개혁

있습니다. 반면에 이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NS 중독 현상에 매몰 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서 저들의 정신세계를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비 성경적인 가정 질서가 파괴되어 나감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리상실과 정신세계를 망들게 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본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귀하다는 사실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선교전략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변화도 촉구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2면에서 계속)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듣고 “나는 지금 두려워. 리더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 고난을 헤쳐 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2. 가능하면 리더 자신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갖춤으로써 위기극복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기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리더의 부재를 두려워한다. ‘누가 리더인가’,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매우 민감하다. 리더 개인의 불안감을 과도히 구성원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위기를 대처할 계획과 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기를 위한 것이다.

3. 리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궁극적인 목표와 점진적 목표를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리더 스스로도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

할 상황인 경우, 점진적으로 단계별 계획이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샐러턴은 탐험대가 남극의 얼음에 고립됐을 때 그 자신도 탈출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 전진하고 그 다음 걸음을 이어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얼

지 않은 바다로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대원들에게 보트를 끌고 다니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리더는 점진적인 계획 속에 부분적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제시하면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향한 노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눈앞의 일이 한 단계씩 전진하

시기에 리더가 정기적으로 현황을 공유하면 구성원들은 그 자체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루스벨트는 경제공황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30회에 걸친 라디오연설을 진행했고, 뉴욕주지사 쿠오모도 코로나사태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일일 기자회견을 지속했다.

#### 4.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솔직

한 마음을 터놓을 신뢰할 만한 소그룹을 갖춰야 한다.

좋은 리더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과 집단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달리한다. 이는 1번 항목의 솔직함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객관적으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솔

직함을 유지하면서도 리더 자신의 두려움과 계획의 불확실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들은 공유 대상과 방법을 택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샐러턴은 부대장 프랭크 와일드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공유하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돌아서만 이런 대화를 하고 다른 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만한 소그룹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리더가 바른 결정을 하고 용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5. 개인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물리적인 돌파구를 유지해야 한다.

역사 속 리더는 신뢰할 만한 이들과의 관계성을 통한 불안 해소 외에도 물리적인 돌파구를 갖추었다. 케네디는 수영을 하거나 동생과 잡담을 했고 링컨은 늦은 밤 백악관 복도를 거닐며 노래하거나 농담을 했다. 샐러턴은 빙판을 걷고 시를 읽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물리적인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시기를 돌파했던 역사 속 리더들의 모습에서 필요한 힌트를 얻길 소망한다.

## 팬데믹 끝나도 온라인예배 계속...현장예배와 다른 설교 방식 필요 회중과 온라인 연결/소통방법 시도...소그룹, 양육, 헌금, 봉사해야

는 노력의 일환임을 상기시키고 가능하면 주어진 임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일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야 한다. 위대한 리더들은 크든 작든 승리를 자축하며 구성원들의 기분을 북돋우는 방법을 알았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정례적인 소통이다. 모두가 두려운

모든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다. 링컨도 신뢰하는 두 명의 비서관과 몇몇 오랜 친구에게 의지했고, 케네디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세우고 동생 바비에게는 자신의 두려움 심경을 공유했다.

리더 개인의 두려움과 의심, 시행착오를 곁에서 감내할 신뢰할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선명하게 다른 두 대통령 후보들의 세계관-정책 및 입장 비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시편33:12).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들 4명은 모두 크리스천 또는 캐톨릭이라고 스스로 밝히거나 기독교를 존중한다고 말하는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는 그들의 전력과 지금의 정책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에 관한 사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일치하거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여러분의 소중한 신앙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에 있었던 마지막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 주목할 것은 47년간 정치인으로 모든 것이 굳은 조 바이든과 지난 3년반 동안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기대보다 훨씬 더 잘 지켜나간 한 비즈니스맨,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성으로 봅니다.

각자의 정치 전력에 있어서 과연 “누가 진실을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였다고 하겠습니까.

한 예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당장에 내가 그랬다는 증거를 대봐 어디!” 라고 했던 “Fracking”은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과 Fox 뉴스에 올린 증거 자료들로 단번에 바이든의 거짓말이 험없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물론, Fox를 제외한 주류미디어는 조 바이든의 거짓말이나 말실수들을 다루지 않고 트럼프 흡입기에 바빴죠.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대통령과 부통령들의 세계관을 통해 이미 내려진 그들의 정책과 입장들입니다. 지난번 정당들이 신앙처럼 지키는 정강(Political Platform)과도 연결이 되기에 지난 기사도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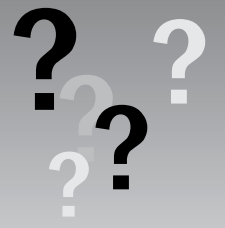
확연히 다른 두 미래를 보여주는 두 대통령/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입장 Mike Pence & Donald Trump (공화당) Joe Biden & Kamala Harris (민주당)



Table with 3 columns: 트럼프 / 펜스, 바이든/해리스, 찬성/반대. Rows list various policy points such as '헌법에 보장된 자유 수호',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수호!', '경제성(젠더/성적 취향)', '헌법 보전 원칙', '교육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세금 감면, 경제 성장', '이스라엘의 미 대사관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동', '불법 이민 및 체류 금지', '적폐 정치 및 불필요한 규제 청산', '낙태사실에서 생존한 아기 보호법안', '무제한적인 낙태 허용', '미국 최초의 낙태 법안 ROE v. WADE 지지', '차별금지 / 평등법안', 'Green New Deal 정책 강력 추진', '경찰 예산 전폭 삭감',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 'BLM(Black Lives Matter) 조직 지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옹립할 수 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요한복음을 매 주마다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말씀인 로고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쉽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로고스가 무엇인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요?

-팔로스 버디스 김 권사

A: 요1: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Logos)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실체(a personal entity)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신약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오시기전 주전 6세기부터 1

### 로고스는 생명력 가진 인격적 실체, 예수 그리스도

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문화권에 속한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이었습니다. 로고스가 그 철학의 골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던 모르던 로고스라 하면 “아, 신을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를 “초월한(transcendent) 존재이면서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내재적인(Imminent) 신적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한 데는 다분히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이 로고스, 로고스 라고 말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해줄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고 그 분이 육을 가지고 종말에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즉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로고스”라는 말 표현법을 요한이 빌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혀 안보입니다. 내가 아무 말을 안 하면 내 마음이 빨간지 노란지 시커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일차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4차원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분의 사상과 표현을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로고스 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감비아의 소년케족(The SONINKE OF GAMBIA)

소년케족은 기원전 750년 경 가나에 최초로 정착했거나 베르베르족의 박해를 받아 인근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오늘날 마르카(Marka), 노노(Nono), 아세르(Aser)의 3분과를 주축으로 다양한 전문직업을 가진 소집단으로 다시 뉘었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족은 시세(Sisse), 드라메(Drame), 실라(Sylla) 그리고



칸테(Kante)로 이들이 세네갈과 감비아로 이주해온 후 이 지역 토속민이던 울로프(Wolof), 세레(Serer), 말린케(Malinke) 부족들과 한데 어우러져 현재는 81,700명가량의 소년케족이 감비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감비아 전 인구의 7%에 달하는 수치다.

플라니족(Fulani)이라 알려진 거대한 유목민 집단의 영향으로 소년케족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게 됐다. 언어는 사라코레(Sarakole) 혹은 소닌케라 불리는 만딩고어

(Mandingo)를 쓰고 있는데 이 언어는 시라베족(Silabe)과 마르카족의 방언과 함께 만데언어(Mande)의 한 가지다.

#### 삶의 모습

사회구조는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부족인 만데족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사탕수수, 쌀, 팥콩 및 주요곡물인 당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대규모 염소, 양, 말, 닭 등의 가축을 기르기도 한다. 극소수이긴 해도 어업이나 사냥도 행해지며 상업은 매우 중요한 생산 활동으로 내수를 주로 하지만 상품거래를 위해 다른 지역 시장으로 나가기도 한다.

과거 남자들은 농경에 종사하고 여자들은 밭일을 해왔으나 오늘날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노동인구 이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략 20-70% 가량의 남자인구가 집을 떠나 2년에서 4년 정도의 월노동을 나가있고 남겨진 여성들과 노인, 어린이들은 여성가장사 회 즉 여성우월주의의 사회를 살고 있다.

소년케족은 벽돌담과 진흙 지붕으로 이뤄진 원형가옥과 벽돌담과 평지붕에 안마당이 있는 직사각형의 2가지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진 가옥들로 밀집한 마을에 살고 있다. 대로변으로 가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대개는 마을 광장에 이슬람교사원이 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다른 부족과는 대조적으로 처가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참금의 일부로 신부에게 주어져서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며 일부다처제가 보편화되었으나 이슬람

교 율법에 따라 4명까지로 한정되었다.

과거에는 아들에게만 유산을 상속했으나 오늘날에는 유산을 8로 나눠 1할은 부인에게 나머지는 아들들에게는 동일비율로 딸들에게는 아들의 반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속하고 있다.

#### 신앙

사실상 전부가 말리키투 무슬림이며 1%미만이 다양한 정령숭배신앙을 갖고 있다. 이슬람은 예언자 마호멧의 가르침에 근거한 세계 주요종교의 하나로 코란 즉 이슬람경전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에 의한 계시가 마호멧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있다. 소년케족은 5계명의 율법을 준수하는 데 1)알라신은 유일신이며 마호멧은

그의 예언자다. 2)하루 5회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한다. 3)기꺼이 제물을 바친다. 4)이슬람달력의 9월인 라마단(람잔) 기간 동안에는 금식한다. 5)일생동안 최소 1회라도 성지순례를 한다.

#### 필요로 하는 것들

인구 8만2천 가운데 겨우 16명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는 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없으며 번역성경도 갖고 있지 못하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세력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어 전도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로 대부분이 주님의 복음을 명확히 접해보지 못했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배럿 대법관 인준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미 대법원은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체계로 재편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찬성 52 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메인주의 수전 폴린스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배럿 인준에 찬성했다. 폴린스 의원도 배럿 지명자 자체에 인준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상원이 인준 투표로 여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준이 이뤄진 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배럿 지명자를 향해 "그 직에 딱 들어맞는 책임자"라고 극찬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준 절차에 조금의 합법성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단 한 명도 배럿 지명자 인준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관 지명자가 야당의 찬성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한 것은 151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일"이라며 "법관 지명자를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해묵은 전쟁이 얼마나 격렬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배럿이 인준되고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됨에 따라 낙태, 총기 규제, 오바마케어 등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서 보수적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대법원 보수화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AP통신은 이번 인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대선 전 인준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이뤘다는 것이다.'

7남매의 어머니인 48세의 배럿 지명자는 이번 인준안 가결로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에 취임하게 됐다. 또 1991년 43세의 나이로 대법관 자리에 오른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기도 하다.

#### 미 교회, 팬데믹 이전 출석 임들어

라이프웨이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 개신교 교회가 팬데믹 이전의 출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이프웨이는 팬데믹 이전인 2월과 9월을 비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 중 87%가 9월에 교회에서 대면 모임을 가졌으며, 13%는 대면으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회에서 아직 대면 모임을 가지지 않는 그룹은 메인라인 계열 교회는 31%로 높았지만, 북중부의 계열 교회는 7%로 낮았다. 교파적으로는 감리교(22%), 장로교/개혁교(23%), 루터교(12%), 침례교(9%) 등이 대면 모임을 가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개신교 목회자들은 9월과 팬데믹

이전인 2월과 비교하면 70% 이하가 출석한다고 답했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개신교 목회자 9%는 출석률이 30% 이하, 20%는 출석률이 30-50%, 34%는 출석률이 50-70%, 21%는 출석률이 70-90% 이라고 답했다. 출석률이 2월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목회자는 많지 않았다. 11%만이 9월 출석률이 2월의 90-100%라고 답했으며, 이전보다 높다고 답한 비율은 4%였다.

팬데믹 이전에 목회자의 45%는 전형적인 주말 예배 참석자가 100명 미만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그 비율이 늘어 72%가 예배 참석자가 1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개신교 교회의 20%가 250명을 넘는 회중들이 출석했으나, 9월에는 6%만이 같은 출석률을 보였다. 2월에 250명 이상 모인 교회의 목회자들은 현재 출석률이 올해 초의 30% 미만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많은 목회자들은 팬데믹이 교회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변화는 계획된 재정 지출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12%는 건축 프로젝트 또는 유사한 지출을 미루었다. 교회 8%는 일부 사역을 중단했으며, 6%는 직원의 급여나 혜택을 줄였으며, 6%는 직원을 해고했다. 6%는 교단에 대한 기부 수준을 줄였고, 5%는 선교나 외부 사역을 지원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 개신교 목회자들은 팬데믹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 교황 "시민결합 지지" ...가톨릭교회 찬반 전망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 바티칸도 당황하고 있다.



23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1일 로마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 내 인터뷰에서 교황은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하나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시민결합법(Civil Union Law)"이라며 "이는 동성애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며 나는 이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차별 금지에 대해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동성커플의 법적 보호와 시민결합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건 즉위 후 처음이다.

한 사제는 "근래 수십 년 간 교황에게서 나온 발언 가운데 가장 폭발력이 크다"면서 "바티칸 성직자들도 하나같이 큰 충격을 받은 모습들"이라고 밝혔다.

진보·보수를 떠나 상당수 사제와 신자들은 교황의 발언이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라는 가톨릭 교리와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교리상으로 성행위 역시 부부의 틀에서만 허락된다.

시민결합법상의 커플은 법적으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데 반해서 교리상으로 정식 부부가 아닌 동거 형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교황의 발언이 간음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 문제를 다루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003년 "동성애자를 존중하

되 이것이 동성 행위나 동성 결합에 대한 승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교황청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재임 기간 있었던 다양한 교리와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부터 이제 시민결합 이슈를 교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지 성직자들은 발언의 배경과 상관없이 이미 전 세계 교계 사회에서 시민결합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트라팔가르 그룹, 이번에도 "트럼프 승리"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한 미 여론조사기관인 트라팔가르 그룹이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라팔가르의 여론조사 수석위원인 로버트 케헬리는 폭스뉴스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70명대(선거인단 확보) 이길 것으로 본다"며 "표면화되지 않은 게 얼마나 큰지에 근거하면 훨씬 높은 득표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대부분 여론조사와 상반된 예측이다. 현재 대부분 미국 여론조사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무게를 두고 있고, 승리 하한선인 선거인단 270명을 바이든이 이미 확보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케헬리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사이 트럼프'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 여론조사가 대부분 숨은 트럼프 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수층은 견해를 섣불리 내놓을 의향이 없다는 인식이 뚜렷해 여론조사에 참여하길 주저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다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트럼프 지지층의 숨겨진 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조사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인 셈이다.

더힐은 "트라팔가르의 2016년 여론조사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핵심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고 있다고 했다"며 "트럼프는 이들 두 경합주는 물론 위스콘신에서 이겼고, 수십년 만에 그런 결과를 만든 첫 공화당 후보가 됐다"고 절언했다.

더힐에 따르면 선거전문매체 '538'은 바이든이 88% 확률로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매체는 2016년 같은 시점에 클린턴에게 87%의 승리 가능성을 부여했다.

선거분석 웹사이트 리얼리얼리얼리티(RCP)에 따르면 바이든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평균 4% 포인트 격차로 앞서 있다.

#### '경합주 잡이'라 바짝 쫓는 트럼프...바이든 잠잠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불과 2주 남기고 매일 경합주를 누비며 동분서주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이다.



바이든 캠프는 10월 20일 바이든 후보가 이날 잡아둔 대면 행사는 없다고 밝혔다. 참모들과 22일 있을 마지막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지난 나흘간 바이든

후보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를 벗어난 건 일요일인 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찾았을 때 뿐이다.

바이든 후보는 월요일인 19일에도 주말에 방송될 CBS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을 녹화했을 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후보가 22일 토론까지 공개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의 절제된 접근은 대선을 2주 남긴 시점에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같이 전국의 경합주를 찾아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1주일 전 찾았던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를 다시 찾는다.

바이든 후보는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서 동물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등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에 속도를 내면서 막판 다지기가 급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과 일소스가 지난 13-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 후보는 49%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45%)을 오차범위인 4%포인트 앞섰다. 이는 한 주 전 7%포인트보다 좁혀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지난 12-17일 조사에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바이든 후보 49%, 트럼프 대통령 48%로 불과 1%포인트의 오차범위 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모두 경합주에 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전을 벌이며 격차를 좁히는 흐름은 선거 전문 웹사이트 리얼리얼리얼리티(RCP)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RCP가 지난 6-19일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전국 단위로 51.1%로 트럼프 대통령(42.5%)을 8.6%포인트 앞섰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11월 10.3%포인트까지 확대됐던 격차가 줄어들었다.

RCP 집계로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리드 폭은 3.9%포인트에 불과해 전국 단위 격차의 절반 수준이다. 이 역시 지난 13일 5.0%포인트까지 확대됐다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다. 다만 두 후보의 격차가 RCP 결과만큼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 세라고 속단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대면 유세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소규모 유세 위주로 선거 활동을 해오기는 했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가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대선 막판에 공개 행사를 며칠씩 잡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77세의 고령이고 말실수가 잦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美 사전투표 6000만명 육박...

미국 대선을 9일 앞둔 25일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6000만명에 육박해 2016년 대선에서 최종 집계된 사전 투표자 수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등 전통적으로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사전투표 열기가 높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NN은 에디스리서치, 캐털리스트와 함께 미국 전역의 투표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5870만명 이상의 미국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2016년 대선 당시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를 합한 사전투표 수 5830만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AP통신도 현재까지 집계된 사전투표 수가 5860만표라고 보도했다.



신비한 경험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무엇일까? 십자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이미 깨달은 자들과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두 부류를 구분 짓는 것은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회심이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악을 떠나 하나님께 전향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중심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양자로 받아들여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삼는 분이다. 회심을 경험한 성도는, 자신의 가치와 판단을 고집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는 일과 그 분의 요청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삶의 흔적을 남기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심하여 중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후의 삶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다. 전에는 마음이 강박하여 교회출석을 거부하던 자가 어떤 일을 계기로 등록교인이 되었다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종교는 삶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내 삶의 정황을 보니 하나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는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 또는 의식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신앙 고백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자기도 취나 주관적인 종교적 경험과 거리가 멀다. 기독교 진리를 터득한 자들과 종교적 감흥을 지닌 자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 중에도 거두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신비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초월된 분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되, 100% 사람이자 신인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절대로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회심을 경험한 신앙인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에 간단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종교 자체의 체험적 이해 전체, 특히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체험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교회역사에 신비주의가 나타나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여왔다. 현대교회도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세기에 소아시아에서 활동하던 몬타누스(Montus, 135-177)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외쳤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그

크게 유행하였다.

신비신학

'위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라는 흥미로운 이름의 인물이 있다. 그의 출생이나 활동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사도 바울의 제자 디오니시우스'라고 밝힌 여러 글을 남겼는데,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엽에 시리아 지방에서 활동한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아무쪼록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그가 남긴 글을 담긴 신

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유출론의 축을 이루는 두 가지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나는 하강운동으로, 만물이 신적 존재인 이데아로부터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것은 상승운동으로, 하강운동으로 유출된 존재들이 자신의 근원인 이데아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신과 인간의 '신비적 합일'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비신학은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디오니시우스는 오직 인간이 자신의 무지

답습하지 않았다. 그는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은혜 중심의 교리를 집대성하였다.

중세신비주의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은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를 전격 수용한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이었다. 중세교회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은 클레르보의 베나드(1091-1153)이다. 그는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 종교개혁을 준비하였고, 타락한 교회와 수도원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자로서 많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그도 신비적 명상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장시간 수도원장을 지낸 그는 수도사들에게 수도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즉, 지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도 내면으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베나드의 신비주의 명상과 하나님과의 합일 경험을 단호히 거부했다.

한국 신비주의

1930년대 한국교회에 신비주의가盛行하였다. 일제치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상황가운데 과거 교회사에 나타났던 신비 운동과 유사한 모습이 재현된 것이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분별없는 행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였다. 유명화라는 여인은 입신 후 예언활동을 시작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한준명은 유명화로부터 평양으로 파송을 받아 거짓예언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다. 백남주는 평양신학교 출신이었지만 유명화, 한준명과 결탁하여 예언과 환상을 중시하였다. 황국주는 백일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뒤, 새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의 길을 올랐다. 신비주의자들 대부분은 교회에 의해 위험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 신비주의의 대표적 인물은 이용도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33년 장로교 총회에서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의 일원으로 정죄를 받은 감리교회 목사이다.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암울하던 시기에 한국 교회에 신앙적 열정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였지만 교회가 계속 침체되자 신앙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10일간 금식을 단행했다. 그 후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1928년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도중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한 것이 보이자 아침까지 주먹싸움을 하면서 그들을 제압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 뒤 교회도 부흥되었고 무엇보다 부흥사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10면으로 계속)

#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3)

## 교회사가 가르친다!(10)-신비주의의 유혹

###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던 성도들이, 그 시간이 지연되자 긴장이 풀리면서 엄격한 윤리 의식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그가 원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것이다.

몬타누스는 이방종교의 사제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로서, 160년경 자신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임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예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새 예루살

비신학을 높이 평가한다. 디오니시우스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답에 얻는 것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그를 대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조차 자신을 보이지 않는 지극히 신비한 분이였다.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을 바로 알기 위하여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누스(Plotinus, 205-270)의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이해가

를 각각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철저히 내려놓을 때에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한 직관인 관상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부정의 방법', 즉 초월적 이시며 지극히 신비하신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자신을 깨달을 때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역설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정통 신학으로부터 벗어난 사상이지만 현재도 영성운동가들이 한국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이다. 무엇

## 신비주의 아니고 상식적도 아닌 기독교신앙은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직통계시' '새 예언' 주장하는 신비주의는 몬타누스로 시작해 현대까지 계속

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곳에 모여 종말을 기다릴 것을 종용하였다. 그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 중에 열정적인 반응을 하며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 금욕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대표적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안(160-240)조차도 신비주의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몬타누스의 신비주의는 성도들을 혼동시키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파괴했다. 결국 177년에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교회는 그가 성령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경험한 황홀경과 방언에 근거하여 '새로운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적 신비주의는 9세기까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의 통합을 시도한 디오니시우스의 사상이 향후 중세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철학은 하층 현상의 세계와 상층 하나님이 거하는 이데아 세계라는 이원론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거하는 하층에서는 상층을 분명하게 볼 수 없으며, 오직 그림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 발전시켜, '유출설'에 근거한 일원론을 기초로 하는 신플라톤주의를 주장하였다. '유출설'이란 마치 물이 가득 차면 넘치듯, 이 세상의 물질은 모두 신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신은 절대적 통일체이므로 어떤 변화를 내포하지 않으나, 그로부터 다양한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디오니시우

보다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은 하나님과 합일하는 관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기도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관상기도'의 뿌리이다.

### 중세 신비주의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초대교회를 마감하고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이다. 그 역시 신플라톤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비평적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신플라톤주의로는 예수님의 성육신 또는 부활과 같은 개념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 그대로



# 리더십 코멘터리 (122)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왜 이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

고귀한 인간, 기쁨 있는 인간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다음 달 말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6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는 안전성 검증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인 11월 셋째 주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우선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5000만 명의 위험군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왜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들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인생은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현대인은 생존과 쾌락에만 연연하며 작은 불편도 못 견디다. 코로나 팬데

쓰는 단어이다. 광석 1톤에 2그램 정도의 금이 섞여 있으면 금광석이라고 한다. 이 금광석은 3500도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져서 불순물을 걸러낸다. 그것도 모자라 화공약품을 넣어 여러 단계의 제련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다 걸러내면 비로소 2그램의 순금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갑작스런 고난의 폭풍을 만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장래의 문제로 깊은 시름에 잠긴다. 또한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마음의 상처로 몸져눕기도 한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삶에 새로운 시작과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에 있다. 도전과 변화를

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비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에 대한 도전을 포기할 때 늪은 것이다. 만약 비전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부자이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안락한 공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에서 어려움과 맞서 싸움으로써 자신의 남은 자아를 혁파하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리더가 되는 일은 되어가는 과정(becoming)이다. 더 나은 '되어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겁내거나 피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자.

### 고난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인생관

인간은 운명에 대해 세 가지 태도를 보인다. 첫째, 하면 된다는 태도이다. 이런 자유의지 철학은 단죄의 철학이다. 이런 철학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단죄한다. 당신이 실패한 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할 때문이라는 단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믹의 어려움 가운데 먹고사는 문제로 좌절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귀한 인간, 기쁨 있는 인간이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삶을 즐기고 긍정하는 사람이다. 운명에 맞서 싸우려면 강한 정신력을 갖춰야 한다.

힘난한 산을 오를 때 힘이 들면 "왜 이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운명을 한탄한다. 이에 반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하면 올라야 할 그 산은 아름답고 장엄해 보인다. 그럴 때는 "왜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정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력이 약해지면 세상이 무의미하고 황량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력을 강화시키면 세상은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인다.

###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인생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고난은 우리를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도록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원래 시련이란 말은 금을 생산하는 제련소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는 용기와 지혜를 갖자. 꿈을 꾸는 열정은 고난 가운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레이터가 없는 배와 같다. 고난 가운데 비전은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고난과 좌절 가운데 희망과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으려면 꿈을 꾸고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꿈의 성패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지에 달려 있다.

### 고난을 극복하려면 비전의 크기를 바꾸어라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물 없이는 4일을, 공기 없이는 4분간만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살 수 없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비전의 크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

둘째, 숙명론이다. 일종의 패배주의 철학이다.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린다. 자유의지철학은 인간을 단죄하지만 숙명론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셋째,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신앙주의 철학이다. 오늘의 자신의 역경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고 힘난한 운명에 감사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와 순간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자각에 민감하고 만족만을 일삼는 사람을 말세인이라 부른다. 이에 대조적인 사람이 고귀한 인간, 기쁨 있는 인간이다. 고귀하고 기쁨 있는 인간은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세계에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고귀함과 기쁨 때문이다.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미 신앙적 성공자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 성 품 칼 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 사랑으로 시작된 일

아이폰으로 통화 이상의 기능을 사용하며 느낀 점이 많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우리글의 띄어쓰기는 글의 아름다움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가끔 섬세한 터치로 문장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아예 마음먹고 띄어쓰기를 무시하며 글을 쓰면 어느새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띄어쓰기를 잘 지키려고 보니 이런 섬세한 작업은 누가 고안한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되도록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동안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의 '띄어쓰기'를 고안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습니다. 최초로 한글교과서와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 바로 파란 눈의 외국인 호머 훌버트(Homer Hulbert, 1863-1949) 박사입니다.

훌버트 박사는 '성품이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훈 아래 자랐습니다. 미국 명문 다트머스대학교(Dartmouth College)를 졸업하고 유니온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를 수학한 수재였지요. 어느 날 그는 조선에 파견할 영어교사를 뽑는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조선에 갈 것을 청했습니다.

드디어 1886년 7월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훌버트는 각종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육영공원에서 5년간 학생들에게 영어와 역사 등을 가르쳤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세계정세에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조선인들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던 당시에 한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훌버트는 포기하지 않고 일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며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한 결과 훌버트는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의 순 한글로 만들어진 조선 최초의 교과서 '사민필지(士民必知)'를 편찬했습니다. 조선인 중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훌버트 박사는 그만의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고 조선인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한글에 띄어쓰기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한글에 띄어쓰기를 적용하면 "장비가 말을 타고"가 "장비가 말을 타고"처럼 의미의 오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최초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는 한글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대중 언어 매체로서 영어보다 더 우수하다. 한글을 띄어쓰기 하면 오해를 줄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창의성(Creativity)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무조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성품이 창의성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 43:19).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로 진정한 창의성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며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훌버트 박사의 창의성도, 사실은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성품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재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떤 교우님의 어머니가 연로하여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 교우님의 어머니는 99세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교우님은 나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서 자신의 어머니께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긴 세월과 온갖 풍상을 헤쳐 나온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감하는 것 같았다. 그 어머니는 죽기를 싫다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셨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성도들도 허물 많은 사람인지라 세상에 살 때에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비신자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도 죽을 때는 비신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어떤 성도는 소망에 찬 모습으로 잠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이전 교회에서 알던 권사님은 연로하여서 죽음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는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권사님의 침대 주위로 모여 들었다. 권사님은 가쁜 숨을 내쉬며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며 가족들을 향해 말씀하신

후 눈을 감았다. 그런데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눈을 뜨시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니, 아직 천국이 아니잖아,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후 돌아가셨다. 그 권사님은 잠으로 유쾌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울까? 이번엔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고 고복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나의 어머니는 1927년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서 93년의 생을 사셨다. 나의 어머니는 한국의 옛 어

머니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다. 하지만 참으로 지혜롭고, 정갈하시고, 조신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고우시다는 말씀을 들었다. 내가 어릴 때에 내가 어떤 난제로 어머니께 물어보면 어머니는 지혜의 말들로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으며, 집안의 물건들을 찾지 못해서 어찌보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찾아주셨다. 어머니는 당시의 나이 사십 세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새책이라고 부른다고 마음 언짢아 하시기도 하였는데, 그토록 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야속하고 허망하게 여겨진다. 어머니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일생을 기도의 용사로 사셨다. 외조모님과 어머니가 같이 손을 잡고 몇 시간씩 기도하시던 모습, 새벽기도의 삼매경에 빠져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잊고 황망해 하시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왜 어머니처럼 기도하지 못할까 하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흠모하였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어머니의 기도에 많이 의존했다. 특히 제가 이만큼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머니는 무서운 시집살이로 인하여 사십대 젊은 나이 때부터 심장병을 앓으셨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심장이 너무 약해서 맥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신기하다고 하셨다. 그 동안에도 어머니는 죽을 고비를 크게 세 번 넘기셨다. 어머니는 물도 삼키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 위에 진하게 내려앉았을 때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오뎅이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주절주절 늘어놓는 인생사를 들을 때는 가슴 조리며 듣기도 하였고 같이 울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일생을 책으로 출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어머니의 일생은 그 시대를 살아간 모든 분들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고 책으로 출판하지는 못했다. 나의 아버지는 50대 초반에

돌아가시면서 "당신은 몸이 약하니 15년만 더 살고 오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머니는 담대하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고 43년을 더 사셨다. 어머니의 몸은 깨어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위태했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신이 맑았고 몸에 심각한 질병도 없으셨다. 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도들과 자녀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가득하셨고 마침내 담대하고 소망에 찬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앞서간 믿음의 용사의 기운을 느끼기도 하였다. 성도들은 자신이 죽은 후에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죽음을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죽을 앞에서 담대하고 소망이 넘친다. 작년에 나는 어머니께 남기고 싶은 유언이 무엇이냐고 여쭙어 보았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cyd777@hotmail.com



연합감리교회 PIM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선교파트너 A-B교회...월500-1천불 지원

KUMC PIM 연례 온라인 컨퍼런스 40교회 참석

미 서부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인교회 가운데 큰 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선교파트너로 맞아 연약을 맺고 매달 1천달러씩 지원하는 PIM(Partners in Ministry) 연례 컨퍼런스가 40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1월 1일에 열렸던 서부지역 한인목회협의회 모임을 통해 그동안 PIM을 설립해 이끌어 온 김용민 목사(연합서부지역 한인선교코디네이터)가 고문

으로 위촉됐고,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목사)와 한기준 목사(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코디네이터로 선임된 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그랜트 하키야 감독(가주태평양연회)의 개회사와 기도로 시작해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가 격려사를 했다. 김용민 목사의 설교 후, 소그룹 모임과 파트너 교회끼리의 모임, 사례발표, 전체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홍삼열 감리사(칼 네바다 연회)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PIM은 재정적 도움을 주는 교회를 A교회로 하고 선교후원금을 받는 미자립교회를 B교회로 나눠 A교회와 B교회가 선교파트너가 돼 선교지원금뿐 아니라 강단교류 및 목회정보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교회는 매달 1000달러씩을 B교회에 지원하지만 B교회 중 1기(2016-2018년)부터 참여한 교회들은 월 500달러씩을 지원받고 있다. 신임 코디네이터 이창민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팬데믹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데 마음을 모았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목회와 영상 제작에 관한 강의 및 장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1.1.1. 부흥기도운동 포스터

11월1일 오후1시 1.1.1.부흥기도운동 시작

매일 750만 해외한인 1분간 집중 기도

1.1.1.부흥기도운동(대표 김호성 목사) 주관 기도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부흥운동은 11월 1일 오후 1시 시작되며 이날부터 매일 750만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1분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1.1.1.부흥기도운동 실행위원 여승훈 목사는 "이번 기도운동은 COVID 19의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재정문제와 건강, 비즈니스, 직장문제 등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우리가 현재 싸우는 진짜 싸움의 영역은 재정이나 건강이나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영적인 영역이다. COVID 19으로 인해 우리가 치르는 모든 영적 싸움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라 말했다. 여 목사는 "COVID 19라는 난세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상황을 상대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더불어

함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특히 750만의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COVID 19의 난세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줄 것"이라 강조했다. 1.1.1.부흥기도운동은 지난 10년간 현대의 로마로 불리는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에서 대규모 전개해온 "미국 재부흥운동의 시즌 2"로 역대하 7:14 절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대적으로 구하여 이 난세가 고침을 받고 회복과 부흥'을 위한 법 해와 한인동포 디아스포라들의 연합 부흥 기도운동이다. 1.1.1.부흥기도운동은 주님께 헌신된 50여명의 신실한 강사들이 매일 짧은 메시지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된다. 기도제목은 유튜브, CTS 뉴욕, 카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문의: (718)683-6332, 111RevivalPrayer@gmail.com, facebook: 111부흥기도운동 (기사제공: 1.1.1.부흥기도운동)



남가주행복찬교회 총동원 전도 축복주일 예배모습

"주님주시는 힘과 용기, 비전 가져라"

남가주행복찬교회 총동원 전도 축복주일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김경일 목사)는 총동원 전도 축복주일 예배를 10월 25일 정오에 드렸다. 김경일 목사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위축돼 있는데 총동원 전도주일 통해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로운 꿈 비전을 갖고 함께 말씀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박종혁 장로가 기도했으며 전성진 교수(에반젤리칼대학교)가 특송했다.

끼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회 가면 기쁘고 헤어지면 아쉬워하는 교회를 꾸무고 행복찬 교회를 시작했다"며 "이러한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모든 교회가 이 꿈 가지고 하나님나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세 가

지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상급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정복 복종케 하신다"고 설명하고 "예배는 하나님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말씀 듣는 인격적 최고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목사 축도로 마친 예배 후 임정의 대체의학대학 총장의 특별진료가 있었다. 남가주행복찬교회는 1978년 김치목 목사에게 설립됐으며 지난 2월 김경일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박준호 기자>



가주 34지구 연방의원 출마를 한 데이빗 김 후보(우측에서 다섯번째)와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데이빗 김 연방하원 당선 지지 호소

캘리포니아 34지구 출마 한인사회 기자회견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일부, 차이나타운, 리틀도쿄, 이글락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34지구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한 데이빗 김 후보가 22일 오전 11시를 생각할 때 답답함이 밀려온다"며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복음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선교지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속희 선교사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갈 때 소동같은 자리를 만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하심 때문"이라며 "지역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자리에 아름다운 동역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시 한인타운 카페 제베르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데이빗 김 후보는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지미 고메스 현 의원에 이어 2위(득표율 21%)로 1-2위 후보들이 겨루는 11월 3일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는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시민들이 2-3개 짬을 뛰며 매일 생계를 걱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본소득 제공"과 "대학학자금 부채 탕감"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무료 의료혜택 제공, 홈리스 문제 해결, 무료 공립대학 교육 제공 등도 그의 주요 공약목이다. 현재 34지구 내 한인 유권자 수는 약 2만1000명. 한인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 결선에서 승산이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기본소득제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중국어 앤드류 양의 지지도 얻어냈다. 또한 지난 예비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3명의 후보들도 김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이어서 그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김 후보는 "한인타운이 포함돼 있는 34지구는 LA에서도 가장 주민소득이 낮은 지역이다. 특히 고메스 의원이 당선된 2012년 이후 LA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향상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며 "서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낮고 기업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 기성정치인 대신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나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 북가주 쿠파티노에 위치한 새빛공성찬교회 김근재 담임목사의 아들인 태어난 데이빗 김 후보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라면서 부모와 교인들을 위해 영어로 된 각종 서류업무를 도왔던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로스쿨 재학을 하며 겪은 경험들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UC 버클리와 뉴욕 에시바대학 벤자민 카도조 법대를 졸업하고 LA 카운티 검사를 거쳐 소니 영화사 등에서 노동법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근무했다. 2019년 맥아더팍 지역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올해 이민법 변호사로 전환해 망명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있다. <박준호 기자>

12월 파송 본교출신 선교사 후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온라인 찬양콘서트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폴 퍼저슨 박사) 신학대학원 한인 신학교 학생회가 주최한 찬양 콘서트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 하나감리교회(담임 강성도 목사)에서 유튜브 라이브(https://youtu.be/Up2-lmUYtkk)로 중계됐다. 찬양콘서트는 12월 파송되는 본교출신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서트는 황성실 전도사, 우성혜 전도사, 안태준 목사, 백정인 선교사, 박속희 선교

사가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백정인 선교사는 "태국에서 선교사역하다 보니 미국에서 아주사에서 신학을 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주셔서 사역할 수 있었다. 광야 같은 목마름 있던 저의 삶에 하늘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으로 오게 됐고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백 선교사는 "복음전하기에 부족한 존재라 선교지로 가게



# 교계 기사판

## 기감 미주자치연회 감독 이취임식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 자치연회 감독 이취임식이 오는 11월 1일(주일) 오후 4시(서부), 동부시간은 오후 7시에 열린다. 이날 은희근 감독이 이임하고 새로 선출된 임승호 감독이 취임한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날 이취임식은 서부에서는 남가주 빌라델비아교회(담임 임승호 목사)서 열리고 동부에서는 뉴욕 참사랑교회서 열린다.

▲문의: (714)591-7050

## 뉴욕실버 컨퍼런스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이 주최하는 뉴욕실버 컨퍼런스가 11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총 5회에 걸쳐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린다. "세계가 부른다 실버를!" 주제로 강의 시간은 9일(월) 오후 8시, 10일(화) 오전 10시, 오후 2시, 8시, 11일(수) 오전 10시이며 강사는 김재열 목사. 회비 20달러(선교사 면제). 수료증을 발급하며 뉴욕실버미션 선교동참 특전이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cpcofny.org) 배너를 클릭해 할 수 있다.

▲문의: (917)963-9356 김경렬 후원원장

## 뉴저지 밀알 후원의 밤

뉴저지밀알선교단(단장 강원호 목사)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11월 29일(주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강사로 이재서 총신대 총장과 임영아 출신 엘렌 자매. 참가비는 일인당 100달러이며 물품 후원도 가능하다. 후원 웹사이트는 www.njmilal.org

▲문의: (201)530-0355

##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 주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30분(동부시간) 열린다. △첫 주: 회복과 생명력-축복의 홀로서기 △둘째 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커뮤니케이션 △셋째 주: AI, 4차 산업혁명, 코로나시대, 다음세대의 비전과 직업 △넷째 주: 코로나시대 미디어 분별과 정복, 중독 다스리기 주제로 진행되며 회비는 60달러.

▲문의: (646)300-4790

# 회장 문석호 목사, 부회장 김희복 목사, 백달영 장로

## 뉴욕교협 제46회 정기총회, 팬데믹 속 193총대 참석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46회 정기총회가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팬데믹 속에서도 총회를 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총대가 참석해준 것에 감사했다. 또 "코로나회장"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는데 nothing에서 something을 이루도록 도운 임원들과 회원교회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원선거에서는 회장에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부회장에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가 선출됐다.

부회장 문석호 목사는 전례대로 박수로 회장에 선임됐다. 경선을 치른 부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김요셉 목사(예수생명교회)가 65표, 기호 2번 김희복 목사가 118표를 받았다. 김희복 목사는 헌법에 명시된 2/3를 받지 못했으나 김요셉 목사가 기권함으로써 2차 투표 없이 김희복 목사가 부회장에 당선됐다. 투표가능 총대수는 총 193명이었다.

평신도 부회장은 현 교협부 이사장인 백달영 장로(퀸즈한인교회)가 자동 선임됐다.

감사는 45회기 감사 김영철 목사, 김기호 목사가 유임되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손성대 장로가 선임됐다.

47대 회장으로 선출된 문석호 목사는 "뉴욕교협의 전통을 살리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와 커뮤니티 관계를 잘 이루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교협으로 새 회기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인사했다.



뉴욕교협 제46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부회장 김희복 목사는 "2003년부터 뉴욕교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장을 보좌해 교협의 위상을 높이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회의에서 총회비 대납 의혹 및 위임투표 합법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또 신입회원으로 구자범 목사(뉴욕광명교회), 고성민 목사(뉴욕기독교교회)를 허락했다.

재정은 총수입 352,607.90달러, 총지출 340,420.58달러, 잔액 12,187.32달러로 보고했다.

또 조원태 목사(신원감사에 배준비위원장), 박진하 목사(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할렐루야복음대회 준비위원장), 할렐루야대회 장소를 제공한 프라미스코회 허연행 목사, 총회장소를 제공한 퀸즈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문석호 목사 인도로 기도 이재덕 목사(증경회장),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평신도부회장), 말씀 김영식 목사(증경회장), 헌금기도 김바나바 목사, 축도 양희철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식 목사는 "하나님이 우

리와 함께 하시니"(렘1:4-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982년 뉴욕에서 개척교회를 시작



뉴욕교협 건물 앞에서 장학생들과 교협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36명에 3만2천불, 선교사 4명에 4천불

## 팬데믹 46회기 뉴욕교협 마지막 장학/선교 사업

팬데믹 속에서 성공적으로 회기를 마친 46회기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의 마지막 사업인 장학금 전달식이 10월 24일 오전 뉴욕교협에서 열렸다.

뉴욕교협은 이날 36명에게 총 3만2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독교 학생 20명, 일반 학생 8명, 기타(특별 2명, 공로 2명, 타주 4명) 8명 등에게 전달된 이 장학금은 올해 할렐루야대회 관련, 회원교회 후원과 성도의 사업체, 그리고 취지에 동참한 강사의 후원금 등으로 마련됐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원래는 30명이 예정이었으나 신청 학생들의 에세이들이 감동스러워 다른 지출을 줄이고 신청한 전원 3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제출서류가 좀 미비한 신청자들에게도 금액을 조절해 전달했다.

또한 4명의 선교사에게 4천 달러의 선교지원금을 전달해, 이날 총 3만6천 달러를 전달한 양민석 회장은 "비전을 갖

았다. 힘들었지만 주의 일은 실패가 없다.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는가가 중요하다"며 "하나님께 줄을 서면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으며 또 회복의 말씀, 구원과 소망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방향을 잡으라"고 전했다.

예배 후에는 탐즈와지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코로나사태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뉴욕교협에 공로패를 전달하고 마스크 3천장을 기증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관계자들이 헬터에 살았던 83세 이광수 씨가 한국으로 가는 날 공항에 전송하려 나왔다.

# 뉴욕나눔의집 83세 치매환자 역이민 주선

## MOU 체결한 한국요양원으로 입주해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은 헬터에서 지내던 83세 치매환자 이광수 씨의 영구 귀국을 도왔다.

이광수 씨는 1991년 이민 와서 퀸즈성당에 다니면서 한양마트, KCS 등에서 일했고 지난 2년 전 생활이 어려워 나눔의 집에 입주해 생활해왔다. 치매환자로 서류미비자인 이 씨는 더 이상 나눔공동체에서 생활하는데 한계가 있어 퀸즈성당과 KCS에서 항공티켓을 후원받아 10월 20일 오후 1시55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이 씨는 귀국 후 뉴욕나눔의 집과 MOU를 체결한 한국요양원으로 입주했다.

뉴욕나눔의집은 건강, 재정, 정신건강, 중독으로 베팅 끝에 몰린 한인노숙자들이 지난해

부터 60여명이 자립해 퇴실했다.

이들의 자립을 위해 중독전문기관(CITS 대표 김도형 박사)과 공동협력하고 정신건강 닥터, 정신과 닥터, 상담전문가들과 함께 치유하며 재활시켜 자립하도록 돕는다.

특히 한인동포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역이민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대표 박성원 목사는 그동안 한인동포사회에서 도와줘 온 영됐지만 코로나-19로 한인사회가 점점 어려워졌으며, 한 인사회와 기관,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길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헬터 운영후원 및 노숙자, 역이민 상담문의: (718)683-8884 박성원 목사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2020 뉴욕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강사 이용걸 목사, 영생목회자훈련원 주관

##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2020 뉴욕목회자세미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장규준 목사)가 주최한 2020 뉴욕목회자 세미나가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이용걸 목사(영생목회자훈련원 주관)로 김요셉 장로(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기도 정기태 목사(직전회장), 찬양 박승호 이성이 집사(영생장로교회), 말씀 이용걸 목사("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전6:11-12), 축도 이용걸 목사, 광고 박안수 장로 순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3강으로 나뉘며 1강은 오찬 전에, 2, 3강은 오후에 진행됐다.

1강은 이용걸 목사가 "위기 관리"(잠17:22) 제목으로, 2강은 "평신도가 보는 목회자상" 제목으로 박안수 장로가 강의했다.

3강은 "팬데믹 시대에 맞는 전도방법"에 대해 우장환 장로가 "새생명 훈련 소개"는 김요셉 장로가 담당했다.

세미나는 이종원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동부개혁장신)

세미나는 3강으로 나뉘며 1강은 오찬 전에, 2, 3강은 오후에 진행됐다.

1강은 이용걸 목사가 "위기 관리"(잠17:22) 제목으로, 2강은 "평신도가 보는 목회자상" 제목으로 박안수 장로가 강의했다.

3강은 "팬데믹 시대에 맞는 전도방법"에 대해 우장환 장로가 "새생명 훈련 소개"는 김요셉 장로가 담당했다.

세미나는 이종원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동부개혁장신)

분식(떡볶이, 오뎅, 군고구마)이 제공돼 음악회를 더욱 즐겁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본 음악회에 참석한 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진행되지만 이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는 이번 가을음악회를 계기로 오는 11월 13일에는 주차장에서 인플레터를 스크린을 준비해 드 라이브인 무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가을음악회 영상은 youtube.be/JzQsEFd0iFc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firstvirginiabc"에서 "2020년 가을음악회"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기사제공: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그는 부흥회를 인도하며 눈물이 있으며 열정을 다하는 설교로 청중에게 크게 어필하였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한 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 마음을 쏟아 부으며 신앙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이다. 특히 그가 끌어오르는 통곡 소리와 같은 기도로 회개를 호소할 때, 함께 한 자들은 아멘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신앙에 대한 각성과 함께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

현재 이용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를 견제하던 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이단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는 신비주의자였다. 그는 거짓예언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던 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신비주의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심지어 유명로로부터 예언을 받으면서 그녀를 '주여'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는 신학의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자신이 몸소 체험한 신비적 신앙을 중시한 목회자였다. 예를 들자면, 그에게 최고의 신앙적 단계는 고난 받는 예수님과 합일하는 것, 즉 예수님처럼 직접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가 신비주의자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던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현대교회에도 신비주의적 신앙이 도처에 널려있다. 1930년대 이후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신비주의를 모두 없애려면 무엇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무언을 듣고 보았다며 자신이 마치 대단한 수준의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과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준다는 자들도 있다.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성경에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지, 정, 의가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인다. 무엇인가를 더욱 경험하려하기 보다, 삶 속에서 회심을 경험한 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한다. 신비주의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장 중시하며 자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앙의 기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느 인간적인 경험으로 대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팬데믹 가운데 야외에서 가을음악회가 진행되고 있다

# 교회주차장에서...FM라디오, 유튜브 중계

##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2020년 가을음악회'

버지니아 주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담임 김계이 목사)는 지난 10월 9일 오후 7시 교회 주차장에서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팬데믹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로하고자 개최된 2020가을음악회는 미주 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됐다. 본 음악회는 코로나 감염의 예방적 차원으로 실내가 아닌 교회 주

차장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좌석을 배치했으며, 각자 개인 차량에서도 FM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회 실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어느 곳에서도 쉽게 개인 휴대전화로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현에 전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학생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 및 다양한 직업(변호사, 목사, 성악가, 군인)을 가진 연주자와 약 8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김계이 담임목사의 메시지와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 첼로, 대금 연주 및 독창과 색소폰 연주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연주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5)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3) 성경적 예배(Biblical Worship) 회복(回復)과 부흥(復興)을 위한 가정(家庭)의 중요성

(1) 주일성수(Observe holy Lord's Day)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4-25).

기독교(基督教)는 예배(禮拜)의 종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拘束)함을 받은 성도(聖徒)들의 모임인 교회(教會)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使命)은 창조주(創造主)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다. 청교도(淸教徒)들은 신약교회의 예배원리(原理)인 ‘영과 진리’(in spirit and truth)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回復)하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정착(定着)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노력(努力)에 의하여 성경(聖經) 중심적(中心)인 예배, 형식(形式)과 의식(意識)을 배제(排除)한 단순하고 영적인 면을 강조(強調)하는 예배 전통이 개혁주의(改革主義, Reformation) 안에 뿌리를 박게 되었다.

예배의 어원 출처(出處)를 살펴볼 때도 예배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경배(敬拜)의 대상인 것과 그 사실을 인식(認識)하는 모든 인간(人間)이 마음과 행동으로 그 분 앞에서 굴복(屈伏)하여 그 분을 지극히 높이는 표현의 행위(行爲)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러야 하는 피조물(被造物)의 특권(特權)이자 임무(任務)인 것이다. 주일성수(主日聖守)는 리처드 벅스터(Richard Baxter, 1615-1691)의 자서전(自敘傳)에서 입증되듯이 안식일(安息日)의 엄숙(嚴肅)한 준수(遵守)는 사실상 청교도(Puritan) 활동 중 가장 우선적(優先)적이고 두드러진

특징(特徵)이며, 개신교의 주일성수 개념에 지대(至大)한 영향(影響)을 끼쳤다. 더 나아가 고국(故國) 한국교회의 부흥(復興)과 발전(發展)의 핵심(核心) 원동력(原動力)이었다.

청교도들은 주일(主日)을 영혼(靈魂)을 위한 장날(場日)이요 단체(團體)의 찬양(讚揚)과 기도(祈禱)로 천국(天國) 잔치에 참여(參與)하는 날로 생각했다. 뉴잉글랜드(New England: 매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메인주, 뉴햄프셔주의 6개 주)의 청교도(淸教徒)들은 주일을 구약(舊約) 전통의 안식일(安息日)로 지켰다. 그들은 주일이 예배(禮拜)와 묵상(默想)을 위해 구별(區別)된 날이라고 믿었다.

### 주일예배에 하나님 임재 강하게 나타나며 주일에 신앙생활의 활력 얻어 한 주의 첫날 주일은 영혼 위한 장날, 찬양과 기도로 천국 잔치 참여해

평균적으로 청교도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3시간을 사용했다. 좁은 다리로 본토와 연결된 보스턴(Boston) 시는 토요일(土曜日) 일몰(日沒)부터 말 그대로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단절(斷絶)되어 주일 해질 때가 되어야 이 마을로 사람과 물건의 자유로운 출입(出入)이 재개(再開)되었다. 주일에는 물건(物件)을 사는 것이나 육체(肉體) 노동(勞動)을 할 수 없었고, 주일 여가(餘暇) 활동들도 역시 금지(禁止)되었다. 이 주일 활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態度)는 뉴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극

히 최근(最近)까지 지속(持續)되었고, 다른 지역들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교계(敎界)의 주일 활동들에 대한 접근(接近)이 매우 다양(多樣)하지만 한 주간의 첫 날이 “주님의 날... 귀하고 거룩한 날...”이라는 청교도(淸教徒)의 견해(見解)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使)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 왕 제임스 1세(James I, 1603-1625)는 1617년 ‘스포츠(sports) 선언(宣言)’이라는 칙령(勅令)을 공포(公

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임스 1세에 이어 찰스 1세(Charles I, 1600-1649) 역시 ‘스포츠 선언’을 재천명(闡明)하고 더욱 더 확대(擴大)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信仰)의 자유(自由)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1620년 최초(最初)의 이민선(移民船)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항해(航海)하면서도 매 주일마다 항해(航海)를 멈추고 영(靈)과 진리(眞理)으로 전능(全能)하신 성삼위(聖三位) 하나님께 주일예배를 드리며 온



적(具體) 내용을 제시(提示)했다.

제118문: 왜 가족(家族)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을 향해 안식일(安息日)을 지키라는 명령(命令)이 특별히 주어졌습니까? 대답: “가족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특별히 주어졌던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키기 의무(義務)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솔(統率)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의 안식일을 방해(妨害)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제117문: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대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온종일 거룩히 씀으로 할 것이며, 언제나 죄악(罪惡)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合當)한 세상일이나 오락(娛樂)까지 그만 두어야 하며, 부득이한 일과 자선(慈善)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除外)하고 그 시간을 전적(全)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準備)할 것이며, 세상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節制) 있게 배치(配置)하고 적절히 처리(處理)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

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일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청교도의 주장(主張)은, 후에 미국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에게까지 계승(繼承)된다. 그는 “안식일(安息日) 제도의 목적과 내용이 신약(新約)의 주일제도(制度) 안에서 완성(完成)되었다”고 한다. 청교도들은 주일예배에 하나님의 임재(臨在)가 강하게 나타나며, 주일은 모든 신앙생활의 활력(活力)을 얻는 날이라고 믿었다. 데이비드 클락슨(David Clarkson, 1622-1686)은 “주님께서 공적(公的) 예배에 의해 더 많은 영광(榮光)을 받으신다.” “공적 예배에는 주님의 임재가 더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청교도들은 주일성수를 의무(義務)로 여기며 철저히 지키는 좋은 전통(傳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필자(筆者) 역시 이에 적극(積極) 동의(同意)한다. 실제로 리처드 벅스터(Richard Baxter)가 사역하던 키더민스터(Kidderminster)의 변화(變化)된 주일성수의 모습에 대해 “주일날 거리에서 전혀 무질서(無秩序)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 거리를 지날 때 수많은 가정(家庭)들이 찬송가(讚頌歌)를 부르고 설교(說教)를 되풀이하여 이 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토마스 부룩스(Thomas Brooks, 1608-1680)는 영국교회의 경건(敬虔)의 능력이 쇠퇴(衰退)하는 원인(原因)이 주일을 엄숙(嚴肅)히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指摘)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미주 한인교회가 강성(強性) 발전(發展)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성수, 즉 주일예배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의식과 설교 말씀을 통한 삶의 지침(指針)이 확실(確實)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COVID 19으로 말미암아 주일성수의 전통적(傳統) 가치관(價値觀)과 개념(概念)이 무너진 현재, 다시 한번 청교도적(淸教徒)인 주일성수(主日聖守)의 개념으로 회복(回復)과 부흥(復興)이 되어야 한다.

kimjoyh@gmail.com

표한다. 스포츠 선언은 교인(敎人)들이 주일 오후에 각종 스포츠나 오락의 취미(趣味)를 종교적(宗教)인 이유로 금지(禁止) 시킨 교회의 가르침을 전면적(全面的)으로 반대(反對)한 것이었다. 제임스 1세는 주일예배를 마친 후 스포츠, 악기연주, 댄싱 등을 얼마든지 즐기도록 한다고 공표한 것인데, 나중에는 술잔치, 가면무도회 등으로 확대(擴大)를 허용(許容)하였다. 당시 영국(英國) 상황을 리처드 벅스터는 ‘기도나 찬송하는 시간에 거리에서 계속 피리소리와 북소리와 고함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와 우리 귀를

전히 주일성수를 했던 것이다.

사실, 청교도들이 스포츠나 신체 단련(鍛鍊)을 반대(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들로 인해 쾌락주의(快樂主義)에 빠져 신자로서 경건(敬虔)의 의무 태만(怠慢)을 경계(警戒)하여 악(惡)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런 퇴폐(頹廢)적 시대(時代) 상황 속에서, 1643-1647년 크롬웰 청교도 혁명(革命) 중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제 118문, 117문 안식일 즉 주일이 그들의 주요(主要)한 의무(義務)임과 구체



## 전광훈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 1년 유보

### 예장고신, 한기총은 이단옹호단체로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 옹호자 규정은 결정을 1년 유보하기로 했다.

예장고신은 20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 70회 총회 정책총회에서 한기총과 전 목사에 대한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대위는 지난 1년간 연구 끝에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전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다만 예장고신은 전 목사 이

단옹호자 규정에 대한 확정 결정은 1년간 미루기로 했다. 이는 전 목사 소속 교단(예장대신 복원 총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위가 내린 결론에 대한 내부 반발의 목소리도 유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예장고신 측 관계자는 “이대위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 목사 측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전 목사 교단(예장대신 복원 총회)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전 목사에 대한 연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 교단

측에서도 고신의 지적을 수용한다고 했다. 다만 자기네들도 관련 부분을 연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1년 후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도 고민 끝에 이대위 보고서는 받되 전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에 대한 확정은 1년 뒤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관련 안건은 이렇게 일단락 됐지만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장고신이 전 목사에 대해 반쪽짜리 결론을 내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목회자는 “한기총에 대한 이단옹호단체 결정은 하면서 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전 목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건 모순”이라며 “또한 전 목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든 교단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임용 후에도 동성에 관련 옹호를 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위원회는 “이 목사나 교수가 된 사람이 동성에 관련 옹호를 할 때는 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시벌함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로 하향하면서 이뤄졌다. 고신 측은 당초 지난 6일로 예정했던 정책총회를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했다. 고신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조심하며 총회를 준비했다”며 “QR 코드 출석, 발열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고 밝혔다.

판식 등이 이어졌다. 김승민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과 안소영 전도사는 사역 선포 및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음공동체는 신천지 이탈자들이 다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앙공동체를 만들 방침이다. 예배와 기독교 변증 교육, 상담, 코칭 등을 통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2주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단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과 이만한 교주의 영생 불사가 허구임을 정통 기독교 교리와 비교·논증한다. 또 이탈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신천지 생활로 단절된 학업, 진로, 취업 코칭, 멘토링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단 사역자 과정도 개설해 교회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때는 해당 컴만 사용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김경수 현대종교 부장은 22일 “JMS 측은 월명동 약수 판매에 대해 배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JMS 탈퇴자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코로나 19 이전에는 물을 판매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19 이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집회 출석을 저조로 헌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비한 물이라 강조하며 교주 능력을 신뢰하게 만들고, 자신의 단체가 진리임을 느끼도록 만들 뿐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하는 방법은 과거 이단들이 취했던 생존전략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의 이유는 다양하다. 황헌영 서울신대 상담대학원장은 26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교회 목회자를 홀로 다니는 ‘외로운 늑대’와 같다고 설명했다. 성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가 이를 심화시켰다는게 그의 분석이다. 황원장은 또 목회자는 예배, 소모임 등 모든 모임에서 중심이 돼 성도들을 이끌었는데 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좌절감이 생겼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온라인 병행·구조조정·소그룹 강화

### 코로나이후교회 3대 ‘변화키워드’ …실천신학대학원대 세미나

온라인 병행과 교회 구조조정, 소그룹·소모임 강화라는 교회 변화의 3대 키워드가 제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맞서 한국교회의 생존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다.

실천신학대학원대(총장 이정익 목사) 조성돈 정재영 이범성 박종환 교수는 21일 경기도 수원북부교회(고창덕 목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생존’이란 제목의 신학 세미나를 열었다. 실천신대 교수 4인방은 지난 6월부터 ‘지역 목회자를 위해 찾아가는 세미나’란 형식으로 대전 인천 전주 순천 밀양 경주 등을 돌며 참가다. 이번이 제9차였다.

조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19, 한국교회의 갈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목회사회학 전공인 조 교수는 “주일 성수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여긴 한국교회가 코로나 초기 정밀 획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면서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강점에 더해 유연성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교회의 강점이 결합한, 사실상의 기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도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대교의 성전과 회당의 관계를 빗대 설명했다. 예루살렘 단 한 곳에만 있던 솔로몬 성전은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양쪽 중심의 예배당이었지만 건물 파괴로 1000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하지만 유대인 포로기 때부터 10명의 성인 남성이 모이면 어디나 만들던 회당은 말씀 중심으로 모임을 이어오며 2500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조 교수는 시공을 초월한 온라인 공간이 현대의 회당이 돼야 하며 성도들의 진화한 온라인 눈높이에 맞춘 교회의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교회의 구조조정 현황도 일부 전했다. 그는 “정책 당위로 내년도 예산을 정하는 시기를 맞아 부교역자를 줄이거나 목회자들이 공동말 획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면서 “작은교회 지원 및 해외선교, 기관선교 등의 예산이 줄고 있어 우

려된다”고 말했다.

종교사회학 전공인 정 교수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가정교회 소그룹 모형을 조사한 최근 통계를 소개하며 “코로나 위기 때 소그룹이 잘 세워진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도 교회 소그룹이 시민결사체 기능을 하며 민주주의와 신뢰도 확산에 이바지했다”면서 소그룹 목회와 마을 공동체 사역을 강조했다.

선교학 전공의 이 교수는 “장애인 없는 교회가 장애 교회”라고 말한 장애 신학자 윌리 바흐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디아코니아(섬김)를 강조했다.

예배학 전공의 박 교수는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순 없지만, 아픈 이들을 위한 쌍방향 온라인 예배 및 제한적 성찬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엔 수원 지역 목회자 40여명이 거리를 두고 참석했다. 공간을 제공한 고창덕 목사는 “시중에 나온 코로나19 책들을 다수 읽어봐도 목회의 앞길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요즘”이라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현장예배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성에 옹호자’ 목사고시 불합격

### 예장고신 정책총회에서 고시부 내규 마련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동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규정을 만든다.

예장고신은 20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 70회 총회 정책총회에서 동성에 반대 관련 법제화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예장고신은 지난해 제69회 총회에서 동성에 반대에 관한 법규안 제정을 법제위원회에 맡긴 바 있다.

법제위원회는 1년간 검토 결

과 “별도의 법이나 규칙을 총회 헌법이나 규칙에 신규 제정하기보다 유관기관에서 규정을 만들어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법제위원회는 강도사 및 목사 후보생 중 동성에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회나 목사고시 등에서 불합격 처리하도록 고시부 내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학대학원 교수의 경우 이사회가 임용할 때 동성에 관련 옹호자들을 임용하지 않고

## 신천지 피해자 돕는 범교계 단체 출범

### CBS ‘이음공동체’ ‘사역 감사예배 및 선포식

신천지 피해자 회복 프로젝트 ‘이음공동체’ 사역 감사예배 및 사역 선포식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CBS기독교 방송에서 열렸다.

CBS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탈자들에게 대한 교리교육과 심리상담, 멘토링을 통해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이들을 한국교회와 연결해 줄 이음공동체를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천지를 비롯 사이버 이단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신천지에 나온 청장년, 다 음 세대에 건강한 신앙을 이어

줄 책임이 있음을 선언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진리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툼이 해결되고 복 받는 인생으로 바뀐다. 이탈자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탁지일 목사는 대표기도를, 이철한기제 류영모 목사는 축사와 격려사를, 손달익 목사는 축사했다. 국악 찬양사역자 김은강 자매가 ‘홀로아리랑’을 불렀다.

신천지 전국대학부장 출신 박수진 자매와 그루터기상담 협회 경기이단상담소장 장은정 소장의 간증, 이음공동체 현

## JMS, 신도들에게 ‘약수’ 장사

### 코로나로 헌금감소 한듯...무료였던 약수 1만원에 팔아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교주 정명석)가 자신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에서 나오는 약수를 ‘신비의 물’이라며 신도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사이비종교 연구소 현대종교(소장 탁지원)에 따르면 JMS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JMS 본부가 있는 충남 금산 기독교복음선교회 자연수련원, 일명 ‘월명동 본부’에서 나오는 약수를 신도들에게 1통에 1만원씩 받고 팔고 있다. 전에는 무료로 마실 수 있었지만 코로

나19 사태 이후부터는 담아갈 수 있는 양과 용기도 제한하고 돈을 내야 배송해주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JMS 측은 해당 약수를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생수보다 미네랄이 8배나 풍부하다”며 “각종 피부병부터 성인병, 암과 불치의 병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안 월명동 약수를 마시고 병이 나는 사람이 수만명에 이른 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는 월명동 약수를 마실 수 있는 전용 도자기 컵을 1만원에 팔면서 약수를 마실

## 목회자들도 코로나블루 호소

### 걸어지는 거리두기...현장예배와 모임 대부분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을 합친 신조어)를 호소하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교회를 담임하는 A목사는 “동료 목사들에게 전화하면 10명 중 7명 정도는

우울증을 호소한다”며 “코로나 블루는 목사들에게도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B목사는 “팅팅 의자를 보면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 마치 허공에 대고 설교한 느낌이었고 예배 후엔 허탈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우울감

## ‘거리 두고 싶은’ 개신교인, 극복해야 미래 있다

### 미래목회포럼 ‘뉴노멀 시대 뉴미니스트리’ 전략 모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변화에 한국교계가 ‘싱크탱크 팀(Think Tank Team)’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은 22일 서울 서초구 웨라튼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포럼을 갖고 ‘뉴노멀 시대의 뉴미니스트리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목사는 발제에서 “앞으로는 비대면예배 선호도가 증가해 인터넷 교회와 ‘가나안’ 성도가 급증할 것”이라며 “교계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한국교회 싱크탱크 팀을 구성해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묻자 ‘거리를 두고

싶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점점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교계가 체계적인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코로나19 시대는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뉴노멀 시대를 예측하는 세계적 석학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앞으로 경쟁사회에서 공생사회로, 이기적 삶의 방식에서 이타적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통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예배와 성만찬, 교회 공동체 등에 대한 신학적 정의 작업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로 비대면예배, 비대면성만찬 등이 이뤄졌는데 이를 온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신학적 연구가 꼭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는 내

생각이 신학으로 자리 잡아가는 위험 속에 살고 있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는 결국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하는 것은 ‘온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가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9%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교회가 힘써야 한다고 답했다”며 “획기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도 온라인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유튜브에서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16억부가 나왔고, 최근 BTS의 곡은 10억부가 넘었다. 개 설교 1만명이 듣는다고 가정해도 16억명이 들으려면 3000년 넘게 설교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우리 미래목회포럼이 영적인 사이와 BTS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본다”고 전했다.

## “이단 종교 위험성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

### 현대종교 500호 발간 기념 ‘온라인이단 바로알기 토크콘서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이단·사이비 종교의 실체가 수면으로 드러났다. 이단 종교의 위험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자칫 이단에 대한 비판이 교회 내부 세력 다툼으로 비칠 수도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단·사이비종교 연구소 현대종교(소장 탁지원)는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이단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현대종교가 발간 중인 월간 현대종교의 500호 발간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그 실체가 드러난 이단·사이비 종교에 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탁지일 현대종교 이사장은 ‘한국 이단의 흐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이단 문제는 변곡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이단 종교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며 이단을 대처할 호기를 얻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교회가 잘 대처해 얻은 결과가 아닌 만큼 숨 고르기를 하며 세대교체 등 다음 단계 작업을 준

비하고 있을 이단들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탁 이사장은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타 종교 비판의 자유가 제한돼 이단 연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교회와 정통과 이단을 얘기해도 사회는 교회 내부의 교권 다툼이나 밤그릇 싸움으로 오해한다”면서 “사회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단 연구를 진행해 이단의 위험성을 설득력 있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탁 이사장은 또 한국교회가 먼저 이단에 빠진 이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치유·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생명존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레야만 교회의 이단 연구가 사회의 공감과 공신력을 얻어 이단의 위험성이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종교 탁지일 소장은 ‘유튜브와 이단’을 주제로 강의했다. 탁 소장은 온라인용 교리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각종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인을 상대로 포교하는 이단들의 행태

를 소개했다. 특히 다음세대에 특화된 콘텐츠나 이단 교리 강의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단편영화 제작까지 나서는 등 날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는 이단들의 유튜브 포교 전략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탁 소장은 “온라인은 시장 간 제약이 없고, 접근성이 클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조작을 통한 가짜 뉴스 전파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콘텐츠 생산 주체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우진의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이단소송 이야기’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소송에 맞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타 종교 비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를 안내했다.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도 1시간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온라인상 모인 100여명은 이단에 빠진 가족, 친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서부터 일부 종교단체·인물들의 이단성 문제, 이단 대처 시 유의할 점 등 일상에서 충분히 마주할 법한 이단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세 명의 강연자는 이단 단체들의 정보에서부터 근황, 대처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 선교의 창 (157)



송종록 목사 (크리스천교전학 연구소)

## 해양(海洋)의 시각에서 본 선교역사

“바다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은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종애를 받던 탐험가인 월터 롤리경(Walter Raleigh)이 한 말이다. 실제로 고대(BC27-AD395)에는 해양 전단(海洋戰團)으로 지중해를 누볐던 로마가 세계 패권을 가졌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무적함대를 바탕으로 한 스페인이 지중해와 대서양의 해운을 장악했다. 늦게나마 해양에 눈을 뜬 영국은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상 무역을 통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11개의 항공모함을 거느린 미국이 전 지구적 패권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바다를 차지한 국가가 세계를 주도해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바다가 70%로서 인류의 생활공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역사 세계선교의 흐름을 해양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1. 지중해 선교시대

이 시기는 선교의 개척기라고 말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는 콘스탄티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AD313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기에는 바울을 중심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회의 중심세력이었다. 바울의 등장은 선교의 태동이며 혁명을 가져왔다. 오순절 강령인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유대권 밖으로 표출되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선교의 명령을 받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흠오시기 위해 로마를 들어 쓰셨다. 이는 세계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

아무튼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회의 헌신 속에서 선교는 동쪽으로는 다메섹과 에벳사를 거쳐서 마케도나로 갔다. 남쪽으로는 보스트라와 페트라를 통해 아라비아로 갔다. 서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와 칼타고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향했다. 북쪽으로는 안디옥을 통해 알미니아, 본도 비두니아로 퍼져갔다. 이때의 특징은 무엇인가? 박해 속에서 흠여짐의 선교요, 약하고 억압받는 피압박 민족들로부터 지배하는 초강대 국가를 향한 선교요, 타 문화권을 향한 순회선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종말론적 선교였다.

후반기에는 교회가 로마제국의 세력을 힘입어 기독교 국가(Christendom)를 이루었다. 그 영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수리아와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리비아,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 스페인으로 확대되고 남유럽에서 중부유럽과 북유럽까지 확장되었다. 이는 절대군주의 권위에 의한 강제된 선교요, 무력에 의한 정복자적 선교이며, 국가권력과 종교와 황금문명이 혼합된 선교였다. 아무튼 지중해 선교시대는 초대교회든 관제적 교회이든 둘 다 파크로마나(Pax Romana)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제국의 대로와 지중해의 항선을 따라 나아갔다.

### 2. 대서양 선교시대

**지중해 시대에는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소아시아와 유럽에 선교를 했다. 대서양 시대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주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선교했다. 태평양 시대에는 미국과 한국 주도로 아시아와 열방에 선교가 되고 있다. 인도양 시대에는 누가 힌두권과 이슬람권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진군할까?**

이 시기는 선교의 흥흥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선교의 가장 위대한 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유럽은 중세 10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개혁자들에 의해 종교개혁의 열매를 맺었다. 사람들의 영적 각성과 교회의 부흥은 자동적으로 선교로 연결되었다. 청교도, 모라비안 운동, 감리교의 갱신 등은 도전적인 선교운동을 낳았다. 마침 세상은 새로운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달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눈이 떠져 가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는 이에 자극 받아 세계 선교를 향해 길이 서서히 열리게 되었다. 이 시대에 선교의 주축세

력은 서유럽 교회였다. 저들은 대서양을 따라 북미, 남미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였다. 물론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권 나라에도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나 주류라고 할 수 없다. 대서양 선교시대의 특징에 대해 조동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 개혁시대의 선교(AD1600-1750)는 성경이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읽히게 하는 선교, 교회를 라틴 문화권 종교에서 모든 민족 문화 속의 교회로 해방시키는 선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 중심의 선교, 성경 권위가 회복되는 선교였다. 또한 식민주의 시대(AD 750 이후)의 선교는 서구 기독교 국가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침략과 식민지 시대, 서구화가 곧 선교로 인식되던

시대, 지배와 착취와 선교가 혼재하던 시대, 식민지 지배 민족의 노예교회 같은 종속 교회 시대, 교회가 서구화의 문명 이식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 3. 태평양 선교시대

이 시기는 선교의 확장기라고 말할 수 있다. 바야흐로 인류는 있어서는 안 될 처절한 1, 2차 세계대전을 치렀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서구 식민지 통치시대로 끝이 났다. 자연히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며 그들 문

화가 부활하고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장구치듯이 제3세계 교회들도 기독교 세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 들어 비서구세계 기독교 인구가 서구세계 기독교 인구보다 3배나 많아지면서 기독교가 서구종교가 아닌 세계종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에 1995년부터 비서구세계 선교사의 수가 서구 선교사의 수를 능가하면서 비서구 세력 주도 선교의 시대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평양 시대의 선교는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왔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의 보편적 선교시대

활짝 열린 것이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은막에 가려져 있었던 선교지가 활짝 열렸다. 이전의 장기 선교사 위주에서 단기 선교와 수많은 Mission Trip이 대중화를 이루고 있다. 선교 동원을 위해 크고 작은 선교대회가 붓발을 이루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세계복음화 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1989년에 시작된 AD2000운동(AD2000 & Beyond Movement), 국제기독교학생회(IVF)가 3년 주기로 개최한 Urbana Champagne Mission

Conference 등이 있다. 한인선교대회로는 198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KWMC대회와 한국에서의 선교한국이 있다. 그야말로 선교동원을 위해 초교파적 연합운동이 펼쳐진 것이다.

### 맺음 말

복음의 서진화(西進化)! 이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나 그 사라는 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16:6-9). 신비하게도 2000년 기독교 선교역사를 돌아보면 성령의 운행하심은 서진화의 궤적이었다.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중해 시대를 거쳐 대서양 시대로 왔고 지금은 태평양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흐름이라면 언젠가 인도양 선교시대가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인도양의 의미는 종말론적이다. 누군가가 힌두권과 이슬람권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려호와 낫의 깃발을 쫓는다면 새 하늘과 새 땅도 열리지 않을까 싶다. 이 가정이 맞다면 누군가 주력부대로서 선봉에 서야 한다. 마지막 선교의 바톤을 이룰 자는 어디일까? 서구교회일까? 아니면 아프리카 라틴권의 교회일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회의적이다. 어쩌면 1천만 명의 한인교회와 1억의 중국교회가 아닐까? 역사의 능선에서 이 두 영적 세력이 연합해 나간다면 능히 인도양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의 주체이신 여호와께서 그 열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 대업을 기필코 이루실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 드라마 예언서 (10)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 예레미야서 배경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예루살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고 계신다.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받았고, 그 때마다 포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포로의 이름은 다니엘(BC605, 1차포로), 여호야긴과 에스겔(BC598, 2차포로), 시드기야(BC586, 3차포로)입니다. 포로시대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말씀에 예언했고, 바벨론 땅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똑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전에 먼저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지점에서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①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②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했는가? ③망했으니까

결문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①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 유다 징계...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70년 지나면 회복시켜주실 것...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아

중이다. 징계기간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주실 것이다(예레미야의 내용) ②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다(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다니엘의 내용) ③심판하셨지만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 징계 기간(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 회복의 모습을 성경의 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에스겔의 내용).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각 장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시간순서대로 재배치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레미야의 내용

요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다에 부여질 재앙을 전하라는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1-2장).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한 음란과 행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3장).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유다를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4장). 완전히 타락한 유다가 포위되고,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오는 민족을 사용하시서 유다를 멸하실 것을 말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롬(여호아하스)은 돌아오지 못하니, 여호야김과 고니야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22장). 여호아하스가 예급의 바로 느고에게 잡혀간 후 여호야김이 즉위했을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의 죄를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예레미야 죽여라!’였습니다(26장). 이 시기에 예레미야의 설교는 14-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주의 새, 땅의 짐승으로 멸하실 것입니다(14-15장). 왜냐하면 유다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17장). 앞으로 그들에게는 ‘개진 항아리’

을 바룩이 대필하고, 그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화투불에 그 말씀을 책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바룩으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합니다(36장). 여호야김이 반바벨론 운동을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보낸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된 후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릅니다-왕하 24:1-2 이 때 예레미야는 여호야킨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13장, 22장). 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와 거짓 예언자들을 벌하겠다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23장). 결국 여호야킨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BC 598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등을 벌이며, ‘하나님께서 2년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나와 싸웁니다(27-28장).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50-51장).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묻습니다. 예언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37-38장). 시드기야 재위 10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을 사라고 하십니다. 회복의 메시지가입니다(32-33장). 결국 시드기야가 11년 4월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고(39장),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힙니다(52장).

남방 유다가 BC 586에 멸망된 이후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포로에서 풀어주고, 그 달라가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40장). 그달라야는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고, 요하난이 이스마엘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해줍니다(41장).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예급으로 망명을 가야할 지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지도를 요청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급으로 가지 말라고 전합니다(42장). 결국 요하난이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예급으로 끌고 갈 때, 예레미야는 예급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43-44장). 다음 시간에는 예레미야에 대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처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19장). 여호야김 4년에 예급과 바벨론의 2차 갈기미스 전투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요시아 때부터 회개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25장). 그 70년은 징계의 기간입니다. 징계에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될 지라도 징계를 끝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실 것입니다(46장).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은 예급,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술, 엘람 등입니다(46-49장). 이런 예언의 말씀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경건한 성도의 삶의 특징(1)(시4:1-3)

“경건한 자”는 히브리말로 “카시드”, “충애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경건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고백은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그럽

게 하셨다”는 것은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즉 “relief”를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건져주시고 항상 응답해주셨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 화 경건한 성도의 삶의 특징(2)(시4:2-3)

경건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삶의 특징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결단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다. 오늘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십시오!

## 수 경건한 성도의 삶의 특징(3)(시4:4-5)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건한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경건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늘 하루하루를 말씀을 통한 교훈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받고 심중에서 묵상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억

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침대에서 고요히 반성하고 흑사라도 범죄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을 잡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 목 경건한 성도의 삶의 특징(4)(시4:6-8)

경건한 성도의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또 누리면서도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 사랑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 나쁜 일에 빠지기도 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샘을 마시며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은 곡간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낮고 소중합니다. 내 곡간이 모두 빈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모두 소유했음 지라도 그 분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 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1-3)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른 아침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아침을 깨우면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 매일아침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인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 나와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두려워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 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시5:1-3)

오늘은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표현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조용한 묵상과 같은 마음속에 깊이 들어 있는 마음의 소망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서 헤아려 살피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모두 드러지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헤아려주시고 살피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특별히 1절은 대표적인 기도의 모본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지요!

#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 보기 좋은 문서 만들기

컴퓨터가 우리 사회의 주된 도구로 사용하면서 서버부터 가장 많이 사용된 프로그램은 문서를 만드는 워드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전달수단이 컴퓨터였을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화면에 잘 만들어진 문서를 보는 일은 편하고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드는 사람이 한 번만 생각을 바꾸면 보는 사람이 쉽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답은 문서 크기 조절과 글자 크기 바꾸기입니다.

수많은 글과 사진 그리고 문서가 스마트폰으로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로 보내고 받던 일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이렇게 전해진 것들은 우리를 기쁘고, 신나게, 때로는 유익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크기는 Letter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즈를 유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글자를 크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상하좌우의 마진을 줄이고 머리말 꼬리말은 없애십시오. 이것만 줄여도 한 화면에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읽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글씨가 작아 보이지 않아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면 이번에는 한 화면에 보이지 않아 좌우로 움직이며 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읽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용지 크기는 Legal로 하고 좌우 마진은 8, 상하마진은 5, 머리글 꼬리글은 0, 그리고 폰트크기는 28로 합니다.

이렇게 연습으로 몇 줄을 쓰고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PDF 파일은 어디서든 잘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일을 이메일로 혹은 컴퓨터용 카드로 나에게 보냅니다. 이게 이해가 되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이 읽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이라고

내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열어 확대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몇 번 반복하여 가장 좋은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

## 용지 Legal, 좌우상하 마진 8, 5, 머리글 꼬리글 0 폰트크기 28로 작성 PDF로 저장해 전송

일부러 그러셨을 리 없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러셨으리라 믿고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 파일을 원본 파일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 때마다 이 파일을 불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파일을 완성합니다.

아직도 문서는 대부분 컴퓨터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M/S의 Word를 사용하거나 아래 한글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보를 다시 편집해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라도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워드프로세서로 만드는 최종결과물은 종이에 인쇄된 인쇄물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쇄가 생략되고 화면으로 직접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주보의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 배마다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쇄비도 절약하고 아주 좋습니다. 전자주보 만드는 앱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내 손에 들려있는 한 컴퓨터로 보는 일은 아주 드물게 되었습니다. 이메일도 스마트폰으로 체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체크할 때 글자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만든 파일은 문제가 됩니다.

문서를 만드는 목적은 독자들이 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만 바꾸면 아주 쉽습니다. 살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단 하나만 바꾸면 엄청 편해지는데 말입니다.

글자 크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보려면 해당 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최종결과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어디서도 볼 수 있는 PDF 파일로 만드는 것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쇄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sjyoon7231@gmail.com





선교 편지

필리핀

새 학기가 시작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6월 달에 시작해야 할 새 학기가 미루어지다 9월 초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2,000~5,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필리핀은 대면수업이 전부 취소되어 오직 인터넷과 홈스쿨링(Module) 형태로만 수업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시그널도 안 잡히는 저희 학교는 인터넷수업을 할 수 없어 홈스쿨링 형태인 모듈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주일 기준으로 선생님이 과목별로 설명을 하고 연습문제를 만들어 집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교육부 방침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 올 수 없어 매주 금요일마다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한주 동안 공부한 문

필리핀 전체 학생의 30%가 이번 학기 등록을 포기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무리한 진행으로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없이 힘든 시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나 핸드폰이 없고, 핸드폰이 있더라도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 희망 학교도 모듈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정상수업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주 학생들의 문제지를 만장 이상 복사하다 보니 지출이 많아졌는데 학부모들은 대면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금을 받는다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인 100페소(한화2,500원, 미화2달러) 등록금을 안 내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실망스러운 적도 있지만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슬렘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필리핀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 것을 배웠습니다.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않고 주변의 언덕을 거의 70도 이상 경사를 심하게 만들어 놓았고, 비가 내릴 경우 완만한 배수로가 없다보니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데 무너진 도로는 언제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늘 불안해합니다. 비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기철에 집을 수리함

건기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벌일 없는데, 우기 철에는 지붕에 빗물이 자주 썩니다.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50년이 지난 오래된 나무집입니다. 더운 나라는 나무 집에 '아나이'라는 벌레가 나무를 갉아 먹습니다. 건기철에는 집 안의 마룻바닥과 벽을 주로 작업하고 우기철에는 주로 지붕에 올라가 빗물 새는 곳을 찾아 막아 줍니다. 가능하면 지붕에 잘 올라가려 하지 않는데 함석지붕이 낡아서 밟으면 밟을수록 썩으러지고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제지를 받고, 새로운 문제지를 나눠 주고, 모르는 부분은 설명을 해줍니다.

수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 주민들은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의 학부모들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읽고 쓰더라도 고학년 아이들의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못되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이 생겨나고 있어 벌써 12명 학생들이 이번 2020년 새학기 수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다보니 선생님들이 많은 헌신을 합니다.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들 집의 방문은 쉽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방문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같이 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꾸부란 마을을 방문할 때는 산사태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지역을 몇 군데 지나다녀야 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한국과 달리 이곳의 사립학교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 입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가 이곳 잠보앙가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벌써 2주째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사역지인 림빠빠 마을은 더 많은 비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림빠빠 마을의 도로가 유실되어 차가 지나갈 수 없어 차에서 내려 무너진 도로를 걸어 지나가는 삼륜차를 갈아타고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곳곳의 산사태로 주민들이 대피를 하였고, 몇몇 강 옆의 집들은 흔적도 없이 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집에도 물이 들어왔는데, 웃으면서 "비가 오니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물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

2003년부터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좋아서 매년 집값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수공사는 제가 직접 하는데 집이 낡아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기도 제목

1.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필리핀 전체가 혼란스러운데 속히 진정되어 모든 일이 일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2. 2020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외진 지역이라 온라인 수업을 못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는데 코로나에 조심하도록)
3. 준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4. 유치원 담당 레지 선생이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과 함께 격리 중인데 별일 없도록
5. 가정방문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오정윤/공유자 선교사  
ohgongtak@hanmail.net

채플린 임상목회 (45)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공감 사역 (Ministry of Empathy)

강단에서의 설교 사역과 성경공부 사역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필자 또한 담임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열정을 쏟았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생애 대표 사역 세 가지가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이셨으니 세 번째 치유사역은 기도로 감당한다면 성도들 앞에서 행하는 사역은 두 가지 설교와 말씀공부인도가 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역에 치중하다보면 양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 소통에만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야 할 것보다 남에게 늘 지시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필자도 채플린 훈련을 받으며 2,000여 시간의 실습과정을 거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남의 말을 계속해서 경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들어보면 환자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파악이 되니, 상대방의 말을 끊고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어설픈 훈계조의 충고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와 처방적 문제해결방식은 도움은커녕 환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중년의 말기암 환자에게 교회의 성도들이 간헐히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며 환자 자신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감청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육신의 치유라는 헛된 소망에 매달린 나머지 마지막 남은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죽음과 이별을 준비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채 결국은 분노와 두려움, 더 큰 좌절감과 실망감 속에 생을 마치고 말게 됩니다. 물론 죽음 후의 진정한 영생에 대해 묵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소원했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정작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남은 유족에게마저 깊은 슬픔과 고통만을 남긴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경청할 때는 우선 상대방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말하게 하고 그 감정들에 대해 인정하며 공감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당연한 죽음 앞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적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실한 환자들 역시 사랑하는 배우자나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먼저 떠난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힘들어 합니다. 일단 어떤 이유이든 두려움의 감정을 오픈하면 그 두려움에 대해 더 말해보라고 합니다. 조금씩 더 깊은 두려움의 정체와 원인을 자기도 모르게 끄집어 낼 때, 옆에서 진정어린 공감을 하며 경청해주는(empathic listening)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 자체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감정을 정상화(normalize)해주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싶은 믿음을 인정(affirming faith)해줍니다.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기도까지 부탁한다면 이 환자는 암울했던 두려움과 슬픔, 절망과 분노의 깊은 웅덩이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회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도 가장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공감하는 사역에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조금 더 성도들에게 귀와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는지, 그들의 아픔과 고충을 들어주며 공감해주지 못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직장사 업무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세심히 진심으로 경청해주며 공감해줄 때 비로소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의 문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참된 회개와 용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tdspark@gmail.com



#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

Desiringgod.org, 펜데믹 시대에 은혜 없이 맞닥뜨린 미지근함과 탈진 극복위한 연합 강조

평범한 크리스천의 삶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 실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삶이다. 그 기적은 다름 아니라 진실 된 마음과 함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이다. 특히 코비드 19이 만들어낸 비대면 시대라는 '뉴노멀'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연합”으로 얻는 힘과 경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음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들어서게 된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과의 거리감과 미지근함을 느끼게 하는 값싼 은총 그리고 순종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값싼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명령에 스스로를 노예화함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치고 수치심만을 느끼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두 번째 길이

## ‘은혜’의 위험

인간의 마음, 가족 또는 교회에 관계없이 은혜가 진정으로 지배하는 곳이면 죄가 달아나고 거기에 의가 피어난다. 불행히도 우리 중 일부는 은혜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서도 은혜가 우리 삶에 진정한 권위를 가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용서, 자유, 받아들임,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원하지만 그렇게 할 때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을 어떤 조건 또는 명령이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혜가 단지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롬5:21).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롬6:1).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렇지 않은가? 왜 성경 말씀을 놓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하는가? 왜 죄책감이 우리 말 한 권을 차지하도록 만드는가?

바울은 자신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엄한 경고를 답으로 준다. “그러나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6:15-16).

“은혜”가 더 이상 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두 배로 얽매인 노예로 삼는 게 된다. 순종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잔인하고 억압적인 주인이다(롬6:12).

죄에 굴복하면서도 은혜라는 말을 운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차갑게 될 수밖에 없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주는 판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집사, 우리의 빛을 처리해주는 은행가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냉소주의가 싹트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를 원하지도 않으면 또한 우리를 기뻐하지도 않는 게 분명하다. 은혜가 신이 될 때, 하나님은 둔감하고 무관심하며

다. 램킨 윌본(Rankin Wilbourne)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야 할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은혜의 노래는 비인격적이며 당신 안에 냉소적인 차가움만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제자도의 노래는 기쁨 없는 의무가 되고,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끝없는 과제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분리된 냉소주의와 영혼을 부수는 율법주의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멜로디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The Path Between Lukewarm and Worn Out).

지나치게 용서에 의존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뿐 아니라 과도하게 자아에 의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에 감명을 받으셔야 한다는 은근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따라서 순종 잘 하는 나의 경우에 사실상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지나친 방법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미묘한 생각에까지 빠지게 된다. 그 결과는 다름 아니라 뒷면에 숨어있는 사탄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탄은 훨씬

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방향함과 낡은 율법주의 사이에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려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윌본은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립시다. 그 연합은 하나님이 인간은 그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 연합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그

그를 실망시켰다고 해도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을 용서하신다”(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Reason for God).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은혜를 나눔하고 자아를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가?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양방향에서 동시에 정화의 역할을 하는 연합의 힘을 보여준다.

##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은혜를 나눔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가? 요한은 은혜를 당연히 간주하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요일1:6). 죄 안에서 계속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은 우리가 쓴 가면을 벗겨내고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모를 뿐 아니라 사실상 은혜의 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창조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실 것을 기대하라(갈2:20).

##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

그러나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요한은 자기 의에 관한 경고를 잊지 않는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1:8). 만약에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의를 확인하는 식으로 바뀐다면, 그건 결코 기독교가 아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기반으로 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심지어 순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우리는 깨끗하기 위해 고백해야 한다. 빛 가운데 걸으려면 남아있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거나 의로움을 향해 가혹한 산을 올라갈 필요가 없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지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성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속이 되셨다(고전1:30).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요한은 몇 구절이 더 지나서 이 좁은 길을 다시 언급한다. 요한일서 2장 1절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은혜의 나눔을 주의 하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자기 의를 조심하라).” 이것이야말로 자유와 기쁨, 거룩함과 겸손, 확신과 고백, 그리고 노력과 의존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은 다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연료가 공급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다는 증거가 된다.

## 냉소주의와 율법주의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멜로디 “연합” 순종은 은혜의 통치 받음 드러내는 증거, 그의 은혜만 증명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된다.

### ‘순종’의 위험

불량한 순종은 값싼 은혜만큼이나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고자 순종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 순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잘못된 순에 들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자기를 높이는 데 필요한 충분한 근거로 제공된다. 단지 성경말씀을 잘 아는 것 만으로도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고전8:1).

은혜의 함정에 대해 경고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3:10).

더 교묘하고 더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들며 더 종교적인 방법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교만이 주는 초기의 스릴이 잠시 만족감을 줄 수는 있다. 자신감과 성취가 주는 따뜻한 느낌, 나를 인정하는 타인의 시선, 조금씩 사라지는 의존감 등등이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커녕 먼지만 날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지치고 기쁨은 사라진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함을 통통스럽게 느끼고 구하고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조금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된다.

### 나 자신을 끌어내리기

우리가 은혜를 오용하든, 또는 삶의 여러 다른 시기에서 우리 자신의 교만을 더 키우든 관

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면 모든 삶이 더 나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는 모든 삶에서 살아있는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은혜를 사용해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과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의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다. 은혜와 율법, 신앙, 직장, 교회, 그리스도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오르는 태양,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무게 중심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참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팀 켈러(Tim Keller)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신다. 설혹 당신이

함여거니와”(요일1:7). 이것은 은혜를 나눔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치료법이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점점 더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빛 가운데 걷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순종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죄 없는 아들의 피만이 우리의 죄 값을 갚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유의 증거는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용서만 하는 은혜는 변화시키는 은혜만큼 크지 않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값싼 은혜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라.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은혜 뿐 아니라 당신 안에